

文學碩士 學位論文

조선후기 拂子 연구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이 슬 기

2018年 8月

조선후기 拂子 연구

指導教授 임영애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8月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이 슬 기

이 슬 기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정 병 모



審査委員 _____ 오 세 덕



審査委員 _____ 임 영 애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2018年 6月

목 차

I. 머리말	1
II. 불자의 개념과 시작	5
III. 조선후기 불자의 현황과 특징	18
IV. 조선후기 불자의 의미	63
V. 맺음말	77
참고문헌	85
도판목록	89
국문초록	96
Abstract	98

표 목차

[표 1] 불자가 나타나는 18세기 진영 현황	22
[표 2] 18세기 진영에 나타나는 불자의 특징 분류	41
[표 3] 18세기 진영에 나타나는 불자의 장식 현황	43
[표 4] 순천 송광사 국사전 십육국사진영의 존명과 지물	44

I. 머리말

불자(拂子)는 불가에서 사용하던 공예품 가운데 하나이다.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떨쳐내는 도구인데 본래 열대기후인 인도에서 각종 곤충을 쫓기 위해 사용하던 생활용품이었다. 인도에서는 차우리(Chauri)라는 이름으로 불린다.¹⁾ 현대 인도에서도 차우리는 생활용품보다는 주로 시크교와 자이나교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시크교는 인도와 같이 더운 나라에서 시자(侍者)가 자신이 모시는 인물의 머리 위에서 불자를 흔들어서 시원하게하고, 또는 그들의 몸에 붙는 곤충을 쫓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 이것을 존경의 표현이라 말한다. 자이나교에서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 불살생계(不殺生戒) 즉, 살생을 금지하는 계율에 따라 곤충을 쫓는 용도로 현대에도 사용하고 있다.²⁾ 이렇게 불자는 존귀한 존재의 옆에 있는 시자가 들기도 하지만, 약쉬니(yakṣni)와 같은 풍요의 신이 직접 들고 있는 예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오른손에 불자를 쥔 마우리아 왕조의 약쉬니상이 있다.

이처럼 불자의 시작은 곤충을 쫓는 도구에서 시작했지만, 이 후에는 그 의미가 확장된다. 즉,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시는 이가 옆에 서서 바람을 내 주거나 곤충을 쫓아주며, 해당 인물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려준다. 하지만 불자가 불교에 도입된 이후에는 달라진다. 생활용품이었던 불자가 마치 곤충을 쫓듯이 인간 내면의 티끌과 번뇌를 쫓는 도구로 의미가 확대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곤충이나 먼지를 털어내던 생활용품에서 번뇌를 털어내는 불교 의식 범구로 발전한 불자는 고대 인도불교미술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2세기 초 작품으로 추정하는 마투라 박물관 소장 불좌상을 비롯해 몇몇 삼존상의 협시가 불자를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자가 불자를 드는 경우 주인공의 존귀함을 상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기 신라부터 불자를 든 예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1) 정명호, 「佛敎工藝: 拂子를 중심으로」, 『불교미술』 13, 1996, p. 56.

2) 中村元, 久野健, 『佛敎美術事典』, 東京: 東京書籍, 2003, p. 850.

대표적인 예로 석굴암의 범천과 제석천이 든 불자가 있다. 범천상과 제석천상처럼 중앙 본존의 좌우 협시상이 모두 오른손을 굽혀 불자를 쥐는 모습은 인도의 삼존불 형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중국 고대 불교 미술상에서는 석굴암의 것처럼 완전한 형태를 갖춘 불자를 찾아보기 어렵고 대신에 버드나무 가지를 드는 경우가 많다.³⁾ 이렇듯 불자는 인도를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고대 풍요신인 약쉬니부터 삼존상의 협시를 비롯한 범천, 제석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존재들이 드는 가장 보편적인 지물이다.

아쉽게도 조선시대 이전 불자의 실물 예는 아주 드물다. 실물 예는 극히 적지만 조선후기 진영도, 나한도 등에서 많은 불자의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진영도에서는 불자를 지물로 한 수많은 고승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본 조선후기 불자의 모양은 단순하다. 자루 끝에 동물의 털을 단 모양인데, 다만 자루의 길이와 털이의 색깔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 경우에 따라 털이와 함께 매듭의 일종인 유소를 달아 장엄하기도 하고, 자루와 털이를 연결하는 부위를 용머리로 장식하기도 한다. 재료는 보통 나무로 만들어진 자루 끝에 동물의 털을 다는데, 이때 주로 말의 꼬리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중에서도 흰 말의 꼬리털을 이용한 것을 백불(白拂)이라 부르며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불자는 누구나 들 수 있는 지물이지만,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참선을 중요시했던 선종 승려가 애용한 지물이다. 이때 불자의 용도는 참선을 하며 곤충을 쫓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각국사의 의천(1055-1011)이 집필한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불자는 손향로와 함께 법을 전할 때 사용되는 것’이라 전하고 있다.⁴⁾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 크게 유행했던 승려의 진영을 보면, 적지 않은 작품에서 불자를 들고 있는 승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3) 허형욱, 「석굴암 梵天·帝釋天像 도상의 기원과 성립」, 『미술사학연구』, 2005, p. 23.

4) “以手爐稷拂見貺爲傳授之 信感荷之際輒嗣嚴音遙獻几前”(李基遠, 「大覺國師文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p. 134.

물론 진영 속 승려가 불자만 드는 것은 아니다. 불자를 들고 있는 예도 있지만, 긴 지팡이를 쥔 예도 적지 않다. 잘 알려진 것처럼 진영이란 조사(祖師)나 고승대덕(高僧大德)의 초상화를 말하는데 당대 뛰어난 업적을 가진 승려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려졌다. 이러한 진영에서 불자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을 보인다. 하나는 불자 자루의 길이가 짧아 승려가 손에 가볍게 쥐고 있는 경우, 다른 하나는 불자 자루의 길이가 길어 어깨에 걸친 유형이다. 간혹 뒤편에 세워둔 경우도 보인다. 불자는 진영뿐만 아니라 나한도와 산신도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흥미롭게도 불교와 관련 없는 인물의 초상화에 불자를 들고 있기도 한데, 대표적인 예는 조선시대 문인인 이현보 초상화이다.

불자의 연구 성과는 많지 않다. 불자만을 주제로 다룬 연구는 정명호의 「불교공예: 拂子를 중심으로」가 유일하는데, 이 글에서는 불교공예품의 전반적인 정리와 인도와 우리나라, 중국의 불교미술 속 불자의 형태와 종류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⁵⁾ 정명호의 선행 연구는 불자의 생김새나 종류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했으며, 불자의 의미나 특징 등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쏟지 않았다. 이외에도 몇몇 연구에서 불자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자를 주제로 한 단독의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못했다. 남아있는 실물 자료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 연구를 어렵게 한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몇몇 실물 자료가 확인되고, 아울러 정확한 제작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십여 점의 진영에서 승려가 들고 있는 불자가 확인되므로 이를 서로 비교하여 불자 연구를 진행하고, 그 의미 파악에 주력하려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불자의 개념을 경전과 승려의 문집과 같은 문헌기록을 통해 알아보고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불자가 처음 시작된 인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 후기 불자의 현황과 특징을 조선후기 진영에 나타나는 불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표충사에 남아있는 실물 불자와 비교해보려 한다. 그 특징

5) 정명호, 앞 글, 1996, pp. 47-77.

을 참고하여 조선후기 진영에 나타나는 불자를 장식과 자루의 길이에 따라 형식 분류하여 자루의 길이, 장식의 유무 등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불자가 확인되는 조선후기 작품인 나한도와 산신도의 현황과 특징 또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18세기 진영에 등장하는 고승들을 비롯한 나한도와 산신도에서 주인공들이 불자를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에게 불자가 왜 중요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물론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조선후기 모든 진영의 승려가 불자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손에 불자를 든 승려도 있지만, 긴 지팡이를 든 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도대체 조선 후기 승려 가운데 어떤 위치의 승려가 불자를 들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 불자를 손에 들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국사와 왕사를 지냈던 승려뿐만 아니라 이현보와 같은 문인이 불자를 든 예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는 왜 불가의 불자를 손에 들게 된 것인지 그 연유에 대해서도 밝혀볼 것이다.

II. 불자의 개념과 시작

불자는 짐승의 털이나 삼(麻) 등을 묶어서 자루 끝에 맨 것으로 본래 열대기후인 인도에서 곤충을 쫓을 때 사용하던 생활용품이다. 그러나 불가에서는 번뇌를 쫓는 도구로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석굴암의 범천과 제석천을 시작으로 등장한다. 불자는 ‘불진(拂塵)’, ‘불(拂)’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고 특히 불가에서는 흰 말이나 흰 소와 같이 흰 털을 가진 동물의 꼬리털로 만든 백불(白拂)을 귀하게 여긴다고 알려져 있다.⁶⁾ 불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사용했는데 그 가운데 일본에서는 불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불 또는 불진이라고도 부른다. 짐승털, 면, 마, 수피 등을 묶어 자루에 붙이고 먼지, 응애, 모기 등의 벌레를 쫓던 고대 인도의 생활용품이 기원인 불구(佛具)이다. 자이나교의 행자(行者)는 불설생계(不殺生戒)에 따라 지금도 이용한다. ... 일본에서는 선종에서 많이 이용하지만, 진종(眞宗) 이외의 종파에서도 이용하며, 법회, 관정(灌頂), 장의(葬儀)에서도 도사(導師)가 위의구(威儀具)로 사용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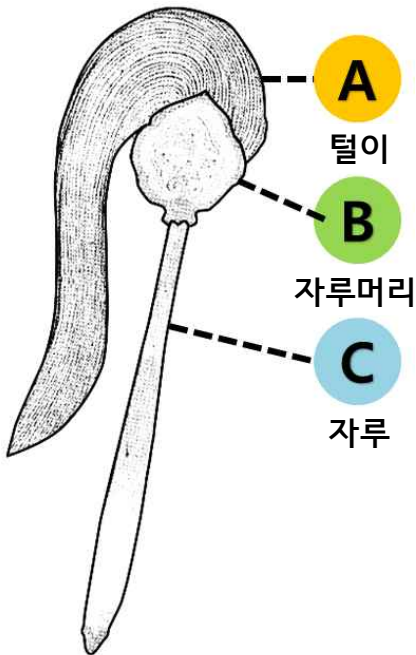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 중국과 일본에서도 불자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자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이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자 연구가 진행된 예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불자 구조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확립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1에 A부분을 불자의 털이라 칭하고 B부분을 자루머리, C부분을 자루로 표기하였다(도1).⁸⁾

6) 정명호, 앞 글, 1996, p. 56.

7) 中村元, 久野健, 앞 책, 2003, p. 850.

8) 본고에서 다루는 불자는 자루가 짧은 불자와 긴 불자가 있고 도1에 나타나는 불자는 짧은 불자에 해당한다. 긴 불자의 경우 용두와 유소 같은 장식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도 1. 불자의 부분별 명칭



도 2. 약쉬니상, 디다르간지 출토, 높이 162cm, 1세기 초, 파르나박물관

불자가 출현하는 가장 이른 예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파르나 박물관에 소장된 약쉬니 상이다(도2). 약쉬니는 드라비다 계통의 신으로 풍요의 여신, 숲과 나무에 깃든 정령으로서 다산(多産)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⁹⁾ 이 상의 제작 시기는 기원전 1세기 초로 추정되며 오른쪽 어깨 뒤로 불자를 걸치고 서 있다. 불교에서 불자가 출현하는 가장 이른 예는 2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의 마투라 박물관에 불좌상이다(도3).¹⁰⁾ 앉아있는 부처 뒤에 두 명의 시자가 불자를 들고 있

이것은 정확한 명칭이 있어 이 장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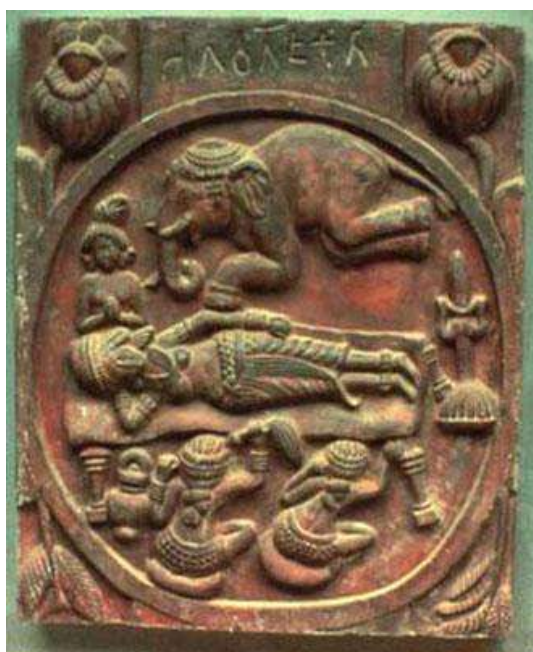
9) 약쉬니에 대해서는 임영애, 「고대 불교조각의 생령과, 형상과 그 의미」, 『중앙아시아 연구』 19, 중앙아시아학회, 2014, pp. 35-59 참조. 약쉬니는 야차의 여성형으로 육감적인 여인의 모습이다.

10) 인도 마투라 불상에 관해서는 이주형, 「인도 초기 불상의 형상과 그 의미 시고」, 『미술사학 시각문화』 12,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3, pp. 192-227 참조. 도3과 같은 형식의 마투라 불상을 카파르딘(Kapardin) 형식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마투라에서 기원 후 1-2세기에 만들어진 불상 유형이다. 대부분 석가모니를 표현한 이 유형은 인도식 도티(Dhoti)를 입고 그 위에 얇은 술을 걸치는데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머리에 소라(Kararda)모양의 상투가 있어 카파르딘 형식이라 부르게 되었다.

다. 이것과 유사한 예는 기원전 2세기에 세워진 바르후트 스투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¹⁾ 마야부인이 태몽을 꾸는 장면을 조각한 것인데 태몽을 꾸는 마야부인 침대 앞에 앉은 시자로 보이는 여인이 불자를 들고 있다(도4). 앞서 살펴본 약쉬니상과 마투라 박물관 불좌상에 시자, 바르후트 스투파에 시자 모두 주인공의 존귀함을 표현하기 위해 불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 7. 불좌상(佛坐像), 기원후 2세기 초, 적색 사암, 높이 69cm, 인도카트라 출토, 마투라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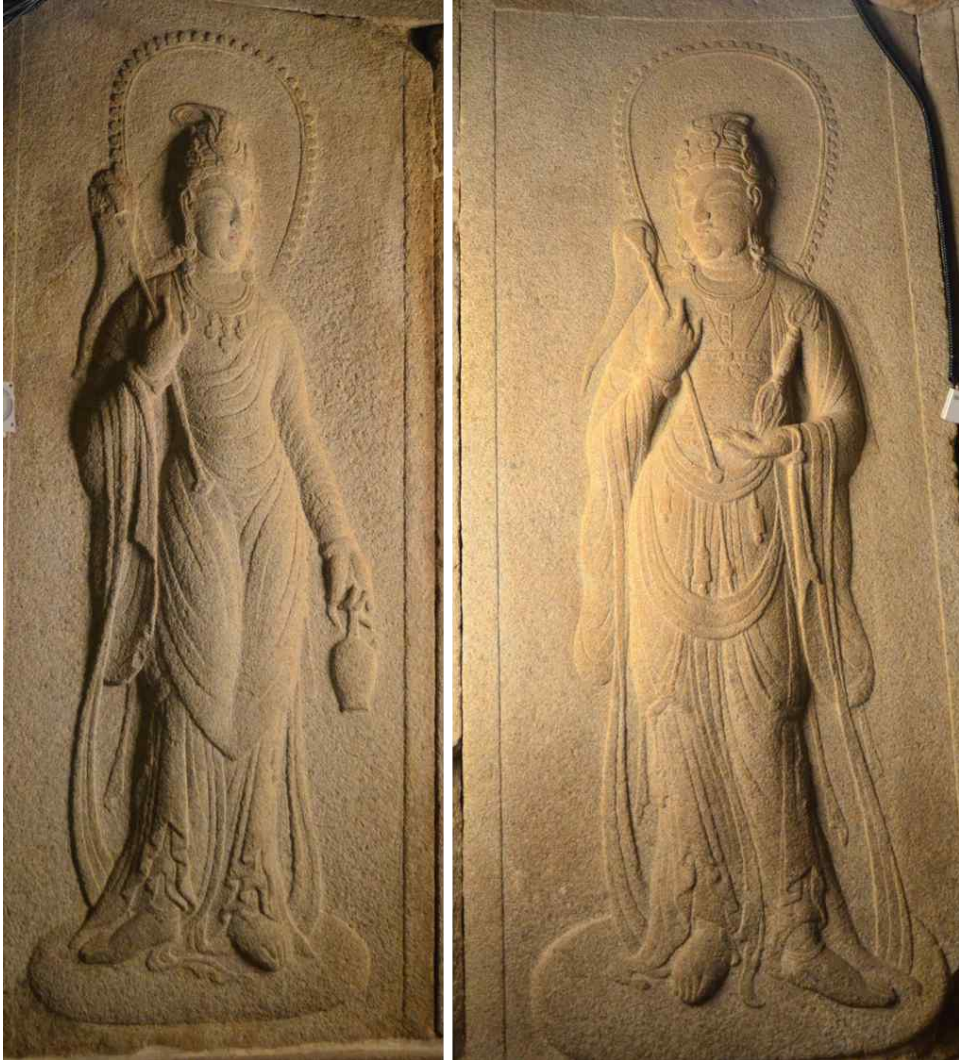
도 6. 바르후트 스투파, 기원전 2세기. 켈커타박물관.

이후 우리나라에서 불자를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예로 석굴암이 있다. 석굴암 본존을 마주보고 좌우에 위치한 범천과 제석천의 지물로서 불자가 나타난다(도5). 범천과 제석천은 석가모니의 설법을 듣거나 수행을

이 유형은 기원 후 180년경 간다라에서 양쪽 어깨를 모두 가리는 통견식으로 범의를 입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마투라에서 점차 사라졌다.

- 11) 바르후트 스투파에 대해서는 김준오, 「인도 초기 Stupa 형식 연구 - Relief stupa 분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2 참조. 바르후트 스투파는 다양한 부조도상이 많이 남아있다. 탑문이 1/4 정도 남아 대부분이 파괴되었지만 약 70가지의 본생도와 상징적 도상이 남아있어 초기 스투파 유형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탑문과 울타리에는 다양한 도상을 부조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울타리에서 초기 스투파 도상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뚝는 불교의 대표적 천부신(天部神)으로 한 쌍을 이루어 자주 등장한다.¹²⁾ 본존상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범천은 오른팔을 굽혀 불자를 쥐고 왼손은 곧게 뻗어 정병을 들고 있다(도5-1). 왼쪽에 제석천은 범천과 같이 오른팔을 굽혀 불자를 쥐고 왼손으로는 금강저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도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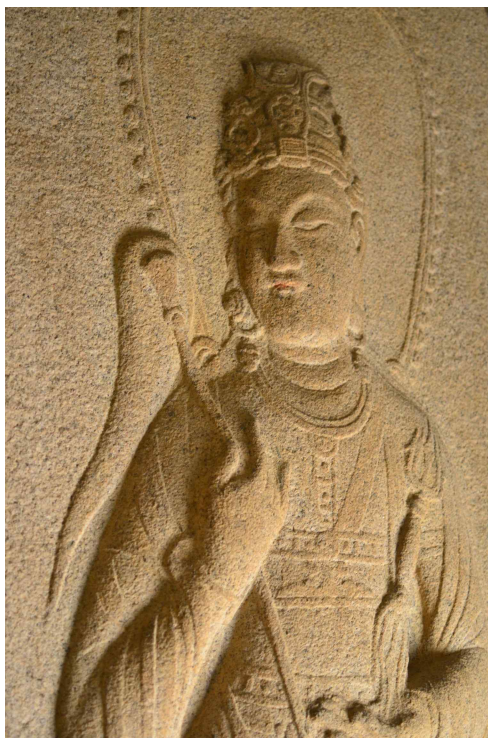
도 8. 범천(왼)과 제석천상(오), 8세기 중반 추정, 석굴암.

통일기 신라의 또 다른 예로는 도리사 금동육각사리함이 있다(도6). 이

12) 허형욱, 앞 글, 2005, p. 5.



도 5-1. 도 5 범천 세부.



도 5-2. 도 5 제석천 세부.

사리함은 1977년 도리사의 석종형 사리탑에서 발견되어 현재 직지사성보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사리함의 모양이 거의 사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 이 사리함은 육각모양으로 제작하였다. 때문에 육각 승탑모양을 연상시켜 신라시대 승탑연구나 목조건물 양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도리사 사리함은 여단을 수 있는 뚜껑이 지붕모양의 옥개부(屋蓋部) 형상을 보이고 여섯 면에 무늬가 새겨진 탑신부(塔身部) 모양을 한 몸체를 가지고 있다.¹³⁾ 이 탑신모양의 몸체에 선각으로

13) 도리사 금동육각사리함에 대해서는 직지사성보박물관, 『직지사성보박물관의 유물』, 2003, p. 322 참조. 도리사 금동육각사리함은 1977년 경북 구미시 도리사의 ‘세존사리탑(世尊舍利塔)’에서 발견되었다. 청동으로 주조하고 도금을 한 육각원당형 사리함으로서 제작 시기는 통일기 신라로 추정한다. 이 사리함은 뚜껑의 기능을 하는 옥개부와 육각형의 탑신부를 따로 주조하였다. 탑신부 여섯 면에는 범천, 제석천, 사천왕이 선각되어 있다. 범천과 마주보고 있는 제석천은 연화좌 위에 서서 군의와 천의를 걸치고 삼곡(三曲)자세를 취하며 오른손에 금강저를 들고 있다. 여성적으로 표현한 제석천과 달리 범천은 연화좌 위에 선 모습으로 군의와 갑의를 걸치고 있으며 오른손에 불자를 들고 있다. 북방다문천(北方多聞天)은 오른손에 탑을 들고 있다. 북방다문천 다음의 천왕들은 각각 경전, 삼지창, 보검을 들고 있지만 도상이 확실하지 않다. 이들 사천왕은 모두 갑



도 6. 도리사세존사리탑금동육각사리함, 고려시대, 도 6-1. 도리사세존사리탑금동육각사리함
직지사정보박물관. 제석천.

제석천, 범천, 사천왕을 새겼는데 여기서 석굴암의 예와는 달리 제석천은 금강저를 들고 있고 범천은 불자와 함께 등장한다.¹⁴⁾ 왼손 위에 자루 끝을 올려놓고 털이가 오른쪽 어깨를 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선각이지만 명확하게 털이를 표현했다(도6-1).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가장 이른 예의

옷을 입고 두광을 표현했으며 암좌(巖座) 위에 서있다.

- 14) 금강저에 대해서는 김미정, 「한국 금강저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8 참조. 금강저는 불교의 의식법구인데, 밀교와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일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금강저의 어원은 Vajra로 부서지지 않는 벼락, 강인한 힘, 단단한 광석 등 여러 의미를 가진다. 금강저는 불교의 교리와 함께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아직 도상이 어떤 방법이나 모습으로 전파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금강저를 크게 다고저형식과 독고저형식으로 나누어 금강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금강저를 든 금강역사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林玲愛, 「金剛力士像의『異人化』の始まりと展開」, 『古代文化』 63-2, 京都, 2011.9; 林玲愛, 「敦煌石窟北魏時代金剛力士의『漢化』過程」, 『中華文化論壇』 57, 中國 四川大學校, 2008-1; 임영애, 「중국석굴의 금강역사 -북위 후기 금강역사의 세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강좌 미술사』 32, 불교미술학회, 2009.6; 임영애, 「인도와 간다라의 執金剛神」, 『강좌 미술사』 29, 2007.12; 임영애, 「간다라의 금강역사」, 『중앙아시아연구』 제9호, 중앙아시아학회, 2004.12.

불자는 이렇듯 위계가 높은 신의 지물로
서 등장해 불자를 들고 있는 주인공의
존귀함과 함께 번뇌를 쫓는 불가에서의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지만 천수관음의 지물로서 불자가 등
장한다. 인도의 다면다비(多面多臂) 신상
에서 유래한 천수관음은 천 개의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고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다.¹⁵⁾ 천개의 눈과 천개



도 7. 천수관음보살상, 고려시대 말,
프랑스국립기메동양박물관.

의 손으로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구제해주는 보살로 알
려져 있다.¹⁶⁾ 특히 고려후기에는 궁중에서 천수관음과 관련한 법회를 개
최할 만큼 천수관음 신앙에 의지했음을 알 수 있다.¹⁷⁾

현재 프랑스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철조천수관음상
은 고려시대 말에 제작한 것으로 추측한다(도7).¹⁸⁾ 이 상은 가슴에 합장

15) 다면다비에 대해서는 양지은, 「려말선조 다면다비 보살 도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9 참조. 다면다비 보살은 주로 관음보살로 많이 조성되었다. 『법화경』 「보문품」과 『능엄경』 등 전통적인 관음관계 경전에는 재난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고, 32가지로 몸을 변화시켜 적절한 방법으로 중생을 구제해 주는 관음의 역할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적극적인 중생구제를 위한 방법으로서의 내현응화(來現應化)가 관음의 가장 특별한 권능임을 강조하여 다양한 형태의 관음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천수관음에 대해서는 김정희, 「한국의 천수관음 신앙과 천수관음도」, 『정토학연구』 17, 한국정토학회, 2012, pp. 149-196 참조.

16) 김정희, 앞 글, 2012, p. 154.

17) 『東文選』 第112卷 疏釋必菴, 祝大駕消災仁王千手智論四種法席疏條, “或誦念消災之妙諦. 或諷宣護國之靈詮. 或談揚別傳宗旨 則口口瀾翻. 或唱演大悲心呪則聲聲雷振”

18) 프랑스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목조천수관음상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프랑스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1999 참조. 목조천수관음상은 원래 왼손, 오른손을 각각 20개씩 표현하여 40의 천수를 나타내는데 이 상은 왼손 20개, 오른손 21개로 오른손이 하나 더 많다. 총 41개의 손에는 각각 다른 지물을 들고 있는데 가운데 중암의 두 팔을 사용하여 보관을 들어 올린 모습이다. 머리에는 높은 보관을 쓰고 얼굴은 긴 사각의 모양을 하고 있다. 현재 대좌부는 없는 상태로 이 상을 올려놓은 받침의 바닥면에 명문이 남아있다. 그 내용은 “發願文此生見不聞 法千加阿止智延 同願人道妙宣 次江氏女青工 止如 東方寺庵主 遠順”이다. 명문에 동방사는 경북 상주 부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려 말에서 조선전기의 상으로 매우 예가 드문 귀중한 상이다.

한 두 손을 중심으로 왼손이 20개 오른손을 21개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20개의 왼손 가운데 하나에 불자를 쥐고 있다.¹⁹⁾ 고려시대 역시 천수관음의 지물로 나타나 통일기 신라에서 쓰인 의미가 이후에도 계승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자는 통일기 신라 석굴암의 범천과 제석천, 그리고 몇몇 사리기 외함의 선각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천수관음의 지물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기도 한다. 석굴암, 사리기, 불화, 천수관음상 등에서 불자를 확인 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실물 불자는 남아있는 예가 없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에 등장하는 불자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불자의 기본에 충실한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어 비록 실물은 없지만, 남아있었다 해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덧붙여 우리나라에서 불자를 세는 단위로는 ‘사(事)’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여러 실록에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이 명하여 의주 선위사(義州宣慰使)인 중추원사(中樞院使) 김하(金何)를 불러 돌아오게 하고, 예조 참판(禮曹參判) 노숙동(盧叔仝)으로써 이를 대신하게 하니, 노숙동이 즉시 명령을 받고 하직하였다. 입모(笠帽) 6사(事), 선자(扇子) 20자루(把), 한철릭(汗帖裏) 4령(領), 저포 칠릭(苧布帖裏) 2령(領), **불자(拂子) 4사(事)**, 모마장(毛馬粧)·유안룡(油鞍籠)·궁전(弓箭)·모자(帽子)·사의(蓑衣) 각각 2건(件)을 맡겨서 진감(陳鑑)과 고운(高閏)에게 나누어 내려 주고, 선자(扇子) 12자루[把], 입모(笠帽) 4사(事)는 두목(頭目)에게 나누어 선사하도록 하였다.²⁰⁾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世祖實錄)」 第7卷

19) 국립문화재연구소, 앞 책, 1999, p. 187.

최안(崔安) 등에게 경회루(慶會樓)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고 … 모불자(毛拂子) 2사(事), 모마粧(毛馬粧) 1부(部), 석등잔(石燈盞) 2사(事), 마전(磨箭) 2부(部), 통전(筒箭) 2부(部), 궁시 고건구(弓矢囊韃具) 1부(部)를 주고, 두목(頭目)에게도 유룡·선자 등의 물건을 주었다. …²¹⁾

『조선왕조실록』 「예종실록(睿宗實錄)」 第5卷

불자를 세는 단위에는 ‘사’를 사용했고 한자 ‘事’의 다른 뜻인 ‘벌’로 읽기도 하였다.



도 8. 주미, 통일기 신라, 총길이 61.0cm, 자루길이 22.0cm, 정창원.



도 9. 안악 3호분 묘주 초상, 4세기, 안악 3호분.

한편 불자와 유사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주미(塵尾)’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도8). 주미는 고구려 고분벽화인 안악 3호분의 묘주도, 덕흥리 고분의 묘주도 등에서 묘주가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도9, 도10).²²⁾ 잘 알려진 것

20) 『朝鮮王朝實錄』 「世祖實錄」 第7卷 세조 3년 5월 11일 癸酉 2번째 기사, “命召還義州宣慰使中樞院使金何, 以禮曹參判盧叔全代之. 叔全卽辭, 命付笠帽六事, 扇子二十把, 汗帖裏四領, 苧布帖裏二領, 拂子四事, 毛馬粧·油鞍籠·弓箭·帽·蓑衣各二件, 分賜陳鑑, 高閑, 扇子十二把, 笠帽四事, 分贈頭目.”

21) 『朝鮮王朝實錄』 「睿宗實錄」 第5卷 예종 1년 4월 26일 己卯 1번째 기사, “己卯/宴崔安等于慶會樓下 … 毛拂子二事, 毛馬粧一部, 石燈盞二事, 磨箭二部, 筒箭二部, 弓矢囊韃具一部. 頭目亦贈油籠, 扇子等物. …”

처럼 주미는 큰사슴꼬리로 만들었다고 해서 ‘주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먼지를 터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고 하여 진미(塵尾)라 불리기도 한다.²³⁾ 특히 큰사슴꼬리는 다른 사슴들이 큰 사슴을 뒤따른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인데, 사슴꼬리로 만든 부채를 손으로 잡고 있음으로써 우두머리 사슴처럼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²⁴⁾ 주미는 도교에서 파생된 지물로 남북조시대 각종 도교상에서 지물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이후 중국 명·청대에 도교상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도11).



도 10. 덕흥리 고분 묘주도, 408년, 덕흥리고분.



도 12. 석굴암 유마거사상, 8세기, 석굴암.



도 11. 도교조상비, 西魏 554년, 높이 70.6cm, 오사카시립미술관.

22) 주미를 들고 앉아있는 묘주 도상은 안악 3호분 외에 덕흥리고분의 묘주, 태성리 1호분의 묘주, 중국 요양 상왕가촌의 묘주, 조양 원대자벽화분의 묘주가 있다. 주미는 원래 위진시대 상류사회에서 유행하던 것으로 주미를 잡고 평상 위에 앉은 자세가 당시에 유행했다고 한다.

23) 임영애, 「『유마경』의 유마거사상과 문수보살상」, 『미술사학연구』 286, 2015, p. 19.

24) 王勇, 「塵尾雜考」, 『佛教藝術』 175, 1987, pp. 73-89.

도교 지물인 주미는 불교미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바로 유마거사이다. 석굴암 감실에 자리 잡은 유마거사가 오른손에 바로 이 주미를 쥐고 있다(도12). 주미는 유마거사를 대표하는 지물로 알려져 있다.²⁵⁾ 짐작컨대 속세를 대표하는 불교신자로 보살의 경지에 오른 유마거사에게 도교의 상징물인 주미를 들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 도교에서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지물인 주미를 불교의 유마거사가 들고 있는 예로 미루어 보면 중국 남북조시대 이후 주미는 불자와 혼용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²⁶⁾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미는 도교에서 시작하였지만, 유마거사의 주미와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차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미와 불자는 그 의미가 혼용된다. 8세기에 건립된 중국 돈황석굴의 일부분인 유림(榆林) 제16굴에는 주미를 들고 있는 범천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도13). 여기서 범천은 화려한 가사와 두광이 표현되어있고 오른팔을 굽혀 주미를 쥐고 있는 모습이다. 같은 시기인 우리나라의 석굴암에서도 범천이 불자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었다. 석굴암의 경우 앞



도 13. '범천' 명문을 지닌
범천상, 榆林 제16굴,
中國敦煌壁畫全集編輯委員會.

25) 유마거사에 대해서는 임영애, 앞 글, 2015, pp. 5-29 참조. 『유마경』에는 주인공인 유마거사가 바이샬리(Vaisali, 毘耶離)에서 태어나 활동했다고 적고 있지만, 그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다. 그는 대승불교 이념을 설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살았다는 바이샬리는 원숭이가 부처에게 꿀 공양을 올렸던 곳으로 부처의 마지막 안거지이자 제2차 경전 결집이 행해졌던 의미 있는 장소이다.

26) 주미에 대해서는 王勇, 앞 글, pp. 73-89 참조. 주미는 團扇의 일종으로 동물의 털로 만들어 손잡이를 단 부채이다. '塵'은 꼬리가 긴 대형의 사슴으로 주미의 기원이 큰사슴의 꼬리에 있다고 한다. 무리를 따르는 사슴들은 큰 사슴의 꼬리를 따라 행동하므로 주미는 '이끌다', '인솔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남북조시대에는 사대부가 청담을 나눌 때 주미를 손에 들거나, 귀족, 승려들 사이에 지성과 교양을 상징하는 儀具로서 애용되었다고 한다. 대개 그 형태는 '上圓下平'으로 위가 둥글어 하늘(天)을 상징하고 아래쪽은 수평으로 땅(地)을 의미한다(圓上天形 平下地勢). 원래 清談持物로 귀족사회의 패션이었던 주미는 점차 권위 있는 신분이나 집단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서 이야기했듯이 오른팔을 굽혀 불자를 쥐고 있어 유림 제16굴과 석굴암의 범천이 같은 자세로 불자를 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14. 동대사 계단원 주자 비회 범천(왼)과 제석천(오), 8세기(1148년 복원), 국립나라박물관.

일본에서도 범천과 제석천이 각각 주미와 불자를 쥐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국립나라박물관에 소장된 일본 동대사 계단원 주자 비회(戒壇院 廚子 扉繪)인데 이것은 8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을 1148년에 복원한 것이다.²⁷⁾ 여기서 범천은 주미를 왼손에 쥐고 있으며 제석천은 왼손에 자루의 끝을 잡고 오른손으로 털이와 가까운 자루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도14).²⁸⁾ 이것으로 보아 주미와 불자는 이른 시기부터 의미가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동대사 계단원의 범천과 제석천의 경우 두 상이 각각 주미와 불자를 들어 두 지물을 구분하여 사용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그 의미는 유사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천이 주미를 들고

27) 계단원에 대해서는 박언곤·이재인·최효식, 「한국 불교사원의 계단과 계단도경의 비교 연구」, 『건축역사연구』 16, 2007, pp. 99-118 참조. 계단(戒壇)이란 승려가 계를 받을 때 수계 의식을 행하는 단으로 계장(戒場)이라고도 부르며 범어(梵語)로는 만다라(Mandara)라고 칭한다.

28) 두 상을 반대로 보는 의견도 있으나, 나라박물관 홈페이지에서는 불자를 든 상을 제석천으로, 주미든 것을 범천으로 보았다. 중국의 경우 명확히 명문으로 범천이라 밝혀진 상이 주미를 들고 있는 예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나라박물관의 의견을 따랐다.

있어 주미를 불자보다 더 높은 지물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짐작한다. 이렇게 주미는 불자와 유사한 범주의 지물로 사용했다. 두 지물의 시작은 다르지만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역할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불자는 불교에서 주미는 도교에서 파생된 지물이다. 때문에 역할과 의미가 같더라도 시작이 서로 달라 같은 맥락에 두고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불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III. 조선후기 불자의 현황과 특징

조선시대 불자의 예는 적지 않다. 비록 그 수량은 적지만, 실물자료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수많은 진영에 불자를 들고 있는 승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불교 진영은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증표로서 법통(法統)을 확인하고 수계(受戒)와 각 종파 내의 가르침, 그리고 전통적 유대를 증명하기 위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고 돌아가신 스승을 기리는 목적으로 제작한다.²⁹⁾ 이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경상남도 산청 단속사(斷俗寺) 「신행선사비(神行禪師碑)」(704-779)에 남아있는데 진영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도15).³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理)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의 모양도 없으면
그의 홀륭함이 후대에 전해지지 않게 되므로 명장
을 불러 '신영(神影)'을 만들었다.

「단속사신행선사비문」³¹⁾

위 내용에서 일컫는 ‘법’은 고승 혹은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어 존경 받는 승려로 추정한다. 시간이 흘러도 그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진

29) 김정희, 「진영특집: 조선후기 화승 진영상」, 『강좌미술사』 35,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0, pp. 69-113.

30) 단속사 「신행선사비」에 대해서는 곽승훈, 「신라시대 지리산권의 불사활동과 신행선사비의 건립: 중대 말 하대 초의 정치변동과 관련하여」, 『신라문화』 3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pp. 193-218 참조. 「신행선사비」를 세운 것은 신행이 왕족이었다는 점, 선종 승려인 점 등이 작용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의 선종사상이 새로운 정권에서 추구하는 것과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행선사비」는 신행의 사상을 주목하여 추모하는 한편 단속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신행선사비의 건립은 국가에서 선종을 공인하는 계기가 되어 이후 선종은 신라사회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31) 「斷俗寺神行禪師碑文(813)」, ‘… 謂言無形之理不建像而莫觀離言之法非著文以靡傳悲夫慈父懷玉 … 而歸窮子得寶幾日是以招名匠畫神影造浮圖 存舍利燒戒香洒定水致懇惻於先聖將龜鏡於季葉焉有若大隱明朝之賢栖心道境之士策念韋提之貴亞迹 …’ (이지관,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신라편』, 1993, pp. 54-59.)

영을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진영의 본격적인 제작에는 선종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³²⁾ 선종은 제자가 스승에게서 법을 받아 계승하는 것 즉, 사자상승을 중요하게 여겼다. 더 나아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선사(禪師)의 존재를 떠올리며 정신적인 영향을 받고 위안을 얻기도 하는 등 선사를 매우 숭상하였다.³³⁾ 이러한 이유로 개산조사(開山祖師)나 유력한 고승들의 승탑을 만들었고 같은 맥락으로 진영을 제작하였다.³⁴⁾

현재 남아있는 진영은 대부분 조선후기의 작품으로 그 이전시기 작품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헌을 통해 진영이 제작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소조상이기는 하지만 진영과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장 이른 작품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찾을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륜사에 아도·자장·원효·의상 등의 십성(十聖)을
소조상으로 제작하여 봉안하였다.³⁵⁾

『삼국유사(三國遺事)』 第3卷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소조상은 십성으로 주인공들이 불교 정착, 대중화, 불교 확립에 기여한 당대 최고의 고승이거나 학승으로 이루어져 있다.³⁶⁾ 또한 고승에 대한 추모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진영과 같은 이유에서

32) 선종에 대해서는 조수정, 「선종화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십우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4 참조. 선종은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 하여 불교의 경전과는 달리 전해지는 선사상은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즉, 인간의 본래 마음이 청정하여 마음으로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이다.

33) 정우택, 「조선시대 후기 진영고」, 『깨달음의 길을 간 얼굴들-한국고승진영전』, 지식정보박물관, 2000, p. 217.

34) 엄기표, 「高麗-朝鮮時代 分舍利 浮屠의 建立 記錄과 樣相 그리고 造成 背景」, 『불교미술사학』 20, 불교미술사학회, 2015, p. 117

35) 『三國遺事』 第3卷 「興法」, “東壁坐庚向泥塑 我道厭羈惠宿安含義湘 西壁坐甲向泥塑 表訓蛇巴元曉惠空慈藏”.

36) 홍륜사 십성에 대해서는 한기문, 「신라 하대 홍륜사와 금당 십성의 성격」, 『신라문화』 2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2, pp. 171-195 참조. 홍륜사 금당 십성은 그 배치가 참배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좌향으로 배치되었다. 때는 이차돈 추모 사업과 선종이 보급되던 헌덕왕, 흥덕왕대였다. 십성은 홍륜사의 중고기 역할의 부활과 관련되는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 진영은 현존하지도 않을뿐더러 제작에 관한 기록도 전혀 찾을 수 없다. 통일기 신라후기의 작품은 없지만 구체적인 기록이 다수 남아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효방은 겨우 8척쯤 되는데, 한 늙은 중이 거처하고 있었다. 그는 삼살개 눈썹과 다 헤어진 누비옷에 도모(道貌)가 고고(高古)하였다. 방 한가운데를 막아 내실(內室)과 외실(外室)을 만들었는데, 내실에는 불상(佛像)과 원효의 진용(眞容)이 있고, 외실에는 병(瓶) 하나, 신 한 켤레, 찻잔과 경궤(經機)만이 있을 뿐, 취구(炊具)도 없고 시자(侍者)도 없었다…

…드디어 들어가서 부싯돌을 쳐서 불을 만들어 향(香)을 피우고 (진표)율사(律師)의 진용(眞容)에 예배하였다…³⁷⁾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第23卷,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

…드디어 선각국사(先覺國師)로 봉하고 또 사신을 보내 본사 영당(影堂)에 예로써 고하고…³⁸⁾

『동문선(東文選)』 第117卷, 「비명(碑銘)」

불교의 정착, 대중화, 국가 불교 성립에 기여한 성자로 선정되었다. 봉안 사업은 흥륜사 승이 주도하고 국왕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금당 십성은 중고기에 주로 활약한 고승에 대한 추모 성격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불교의 정착에 기여한 아도, 이차돈 같은 성자, 그 후 불교의 하층민으로 대중화에 기여한 혜숙, 혜공, 원효, 사파 등과 같은 성자, 국가 불교 확립에 기여한 안함, 자장, 의상 등의 성자라는 선정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중대에 활약한 신인종계(神印宗系) 승려나 국사로 추앙된 고승, 그리고 하대의 선종 고승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표훈(表訓)의 경우 화엄종의 포용이라는 유가종(瑜伽宗) 흥륜사의 의도가 있었고, 또한 유가계가 기존 교종계를 포용하고 주도하기 위해 유가계 고승도 모두 제외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37) 『東國李相國集』 第23卷, 「南行月日記」, “… 元曉房才八尺. 有一老闍梨居之彪眉破衲. 道貌高古. 障其中爲内外室. 內室有佛像元曉眞容. 外則一瓶雙屨茶瓷經机而已. 更無炊具. 亦無侍者. …”, “… 遂入焉. 敲石取火. 焚香禮律師眞容. …”.

고려 문신 이규보(1168-1241)의 시문집인 『동국이상국집』 「남행월일기」에는 원효대사와 진표율사의 진영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당시 진영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진표율사 진영의 경우 예배했다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영 제작의 목적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1478년 성종의 명으로 편찬한 시문선집인 『동문선』에서는 선각국사의 영당을 이야기하여 예배를 할 수 있는 단독적인 공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범일국사(810-894)진영과 무애지국사 진영에 신라 효공왕대 학자인 박인범이 찬한 찬가를 기록하고 있다.³⁹⁾ 또 김부식이 찬한 화쟁국사 진영 찬가도 남아있다.⁴⁰⁾ 이 기록으로 진영의 제작과 더불어 주인공을 위한 찬가가 쓰였다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듯 통일기 신라후기에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 진영을 제작했다는 점, 또 추모를 위한 단독적인 공간을 따로 조성하였다는 점도 여러 기록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존하는 작품은 없다.

고려말엽에는 달마도, 나한도, 선종종파도, 조사도와 같은 선종계 불화가 유행했다. 무학대사의 스승이자 당시 선종에 영향을 준 나옹 혜근(1320-1376)의 진영이 청주 용자산 송천사 등 많은 사찰에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불교초상화의 제작이 성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¹⁾ 그러나 모든 승려가 진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고려시대에는 구산선문으로 나누어진 선종의 영향으로 각 종파의 개산조들을 주인공으로 한 진영 제작이 활발했다. 선종뿐만 아니라 다른 종파에서도 조사들의 진영을 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당시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우고 화엄종에서 가장 학식이 깊었던 해인사의 회랑조사가 있다.⁴²⁾ 조선 전기에

38) 『東國李相國集』 第23卷, 「南行月日記」, “... 遂進封爲先覺國師. 仍遣使告禮. 行事于本寺影堂. ...”.

39) 『東文選』 第50卷, 「贊」, 梵日國師影贊, 無尋智國師影贊.

40) 앞 책, 和諍國師影贊.

41) 정우택, 「조선왕조시대 후기 불교진영」, 『다시보는 우리 초상의 세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p. 147.

42) 해인사 회랑조사에 대해서는 문명대, 「해인사 목조 회랑조사 진영상의 고찰」, 『미술사학연구』 138·139, 한국미술사학회, 1978, pp. 20-27 참조. 회랑조사는 나말여초의

는 뚜렷한 대상을 확인할 수 없으나 나옹, 무학, 지공의 삼화상이 많이 제작되었다. 17세기 중기에서 18세기 말기는 임진왜란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한 시기이며, 이러한 흐름으로 많은 불사가 진행된 시기이다. 특히 전쟁에서 공을 세운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진영을 제작하는 것이 유행하였다.⁴³⁾ 이렇듯 진영은 당대 최고의 고승이거나 국사, 왕사를 지낸 고승대덕들이 주인공이 되었고 조선후기에 들어서면 임진왜란 등 전쟁에서 활약한 승병들도 진영이 그려졌다.⁴⁴⁾ 그 가운데서도 조선후기 진영 일부에 불자가 등장한다. 조선 후기 불자를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18세기 진영으로 총 24개가 확인되었다. 정확한 숫자를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18세기의 것으로 밝혀진 진영 가운데 대략 15% 정도를 차지한다. 불자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진영의 목록은 <표1>과 같다.

연번	작품명	연도
1	안동 봉정사 포월당 대선사 초민 진영 (安東 鳳停寺 抱月堂 大禪師 楚旻 眞影)(도15)	1766년
2	부산 범어사 의상대사 진영 (釜山 梵魚寺 義湘大師 眞影)(도16)	1767년
3	안동 봉정사 송운당 대선사 진영 (安東 鳳停寺 松雲堂 大禪師 眞影)(도17)	1768년
4	순천 송광사 국사전 진각국사 진영 (順天 松廣寺 國師殿 眞覺國師 眞影)(도18)	1780년
5	순천 송광사 국사전 청진국사 진영 (順天 松廣寺 國師殿 淸眞國師 眞影)(도19)	1780년

화엄종을 크게 일으킨 화엄종 고승이다. 그가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는 것은 최치원이 남긴 여섯 수의 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를 보살에 비교하고 하늘이 우리나라를 교화시키려 보냈다가 심지어 부처로까지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인사에는 목조 회랑조사 진영상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회랑조사가 손수 빚어 만들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죽기 직전의 사람이 자신의 초상을 빚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 제작연대는 밝혀지지 않았다.

43) 정우택, 앞 글, 2007, pp. 150-151.

44) 정우택, 앞 글, 2000, p. 220.

6	순천 송광사 국사전 자진국사 진영 (順天 松廣寺 國師殿 慈眞國師 眞影)(도20)	1780년
7	순천 송광사 국사전 자정국사 진영 (順天 松廣寺 國師殿 慈靜國師 眞影)(도21)	1780년
8	순천 송광사 국사전 자각국사 진영 (順天 松廣寺 國師殿 慈覺國師 眞影)(도22)	1780년
9	순천 송광사 국사전 담당국사 진영 (順天 松廣寺 國師殿 湛堂國師 眞影)(도23)	1780년
10	순천 송광사 국사전 혜감국사진영 (順天 松廣寺 國師殿 慧鑑國師 眞影)(도24)	1780년
11	순천 송광사 국사전 각엄국사 진영 (順天 松廣寺 國師殿 覺嚴國師 眞影)(도25)	1780년
12	순천 송광사 국사전 정혜국사 진영 (順天 松廣寺 國師殿 淨慧國師 眞影)(도26)	1780년
13	순천 송광사 국사전 홍진국사 진영 (順天 松廣寺 國師殿 弘眞國師 眞影)(도27)	1780년
14	함천 해인사 국일암 병암선사 진영 (陝川 海印寺 國一庵 碧巖禪師 眞影)(도28)	1780년
15	함양 용추사 무학대사 진영 (咸陽 龍湫寺 無學大師 眞影)(도29)	1781년
16	함양 용추사 송운대사 진영 (咸陽 龍湫寺 松雲大師 眞影)(도30)	1781년
17	함양 용추사 각연대사진영 (咸陽 龍湫寺 覺然大師 眞影)(도31)	1781년
18	의성 대곡사 대덕안국 청허당 대선사 진영 (義城 大谷寺 大德安國 淸虛堂 大禪師 眞影)(도32)	1782년
19	의성 대곡사 서천국조사 지공, 공민왕사 나옹,	1782년

	태조왕사 무학대화상 진영 (義城 大谷寺 西天國祖師 指公・恭愍王師 懶翁・太祖王師 無學大和尚 眞影)(도33)	
20	의성 대곡사 유명조선국 대광보국 승대장 사명당 진영 (義城 大谷寺 有明朝鮮國 大匡輔國 僧大將 泗溟堂 眞影)(도34)	1782년
21	강원 월정사 범일국사 진영 (江原 月精寺 梵日國師 眞影)(도35)	1788년
22	청허당집 청허당 진영 (淸虛堂集 淸虛堂 眞影)(도36)	1794년
23	대구 동화사 사명당 유정 진영 (大邱 桐華寺 四溟堂 惟政 眞影)(도37)	1796년
24	양산 통도사 환성당 지안 진영 (梁山 通度寺 喚惺堂 志安 眞影)(도38)	1799년

<표 1> 불자가 나타나는 18세기 진영 현황



도 15. 포월당대선사초민진영,
1766년, 122.5X78.7,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328호, 안동봉정사



도 16. 의상대사진영, 1767년,
부산 범어사.



도 17. 송운당대선사진영, 1768년, 120.4X79,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28호, 안동 봉정사.



도 18. 진각국사진영(제2세), 1780년, 보물 1043호, 송광사 국사전.



도 19. 청진국사진영(제3세), 1780년, 보물 1043호, 송광사 국사전.



도 20. 자전국사진영(제5세), 1780년, 보물 1043호, 송광사 국사전.



도 21. 자정국사진영(제7세),
1780년, 보물 1043호, 송광사 국사전.



도 22. 자각국사진영(제8세),
1780년, 보물 1043호, 송광사 국사전.



도 23. 답당국사진영(제9세),
1780년, 보물 1043호, 송광사 국사전.



도 24. 혜감국사진영(제10세),
1780년, 보물 1043호, 송광사 국사전.



도 25. 각엄국사진영(제13세),
1780년, 보물 1043호, 송광사 국사진.



도 26. 정혜국사진영(제14세),
1780년, 보물 1043호, 송광사 국사진.



도 27. 홍진국사진영(제15세),
1780년, 보물 1043호, 송광사 국사진.



도 28. 사국일도대선사벽암존자진영,
1780년, 122.5X83, 해인사 벽암당.



도 29. 무학대사진영, 1781년, 101X80.5,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26호, 함양 용추사.



도 30. 송운대사진영, 1781년, 101.8X81.8,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26-3호, 함양 용추사.



도 31. 각연대사영정, 1781년, 102.7X81.5,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26-4호, 함양 용추사.



도 32. 대덕안국청허당대선사진영, 1782년,
130X95.3, 130X95.3, 의성 대곡사.



도 33. 삼화상진영(서천국조사지공, 공민왕사나옹, 태조왕사무학대화상),
1782년, 115X235cm, 의성 대곡사.



도 33-1. 삼화상 진영 서천국조사지공.



도 33-2. 삼화상 진영 공민왕사나옹.



도 33-3. 삼화상 진영 태조왕사 무학 대화상.



도 34. 유명조선국대광보국승대장사명당진영, 1782년, 130X93.7, 의성 대곡사.



도 35. 범일국사진영, 1788년, 94.5X63,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140호, 월정사박물관.



도 36. 청허당집, 4권2책, 목판본, 1794년, 묘향산판, 19.5X30, 동국대학교 도서관.



도 37. 사명당대장진영, 1796년, 107X70,
보물 제1505호, 대구 동화사.



도 38. 환성당대화상진영, 1799년, 121.8X88.4,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50-3호,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자가 나타나는 18세기 진영은 <표 1>과 같이 총 24점이 현존한다. 현존하는 실물 불자의 예가 적은 상황에서 24점의 진영에 나타나는 불자는 조선후기 불자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현재 필자가 확인한 불자가 등장하는 24점의 진영 가운데 10점은 순천 송광사 국사전의 진영이다. 특히 송광사 국사전에 일괄로 조성된 진영은 불자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진영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분석하여 진영이 그려진 고승 가운데 어떤 고승이 지물로 불자를 들었는지 파악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보다 상세히 서술하겠다.

이들 진영에 나타난 불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이다. 첫째, 진영에 출현하는 불자가 모두 백불(白拂)이라는 점, 둘째는 자루의 끝에 용두(龍頭)를 표현하였다는 점, 셋째로 불자의 장식 안에 표현된 매듭장식인 유소(流蘇)이다. 이 특징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백불에 대하여 살펴보면 불자는 원래 동물의 털을 주재료로 하여 제작한다. 그런데 예로부터 흰 말이나 흰 소와 같이 흰털을 가진 동물의 꼬리로 제작한 백불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⁴⁵⁾ 흰색에 대한 이야기는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마를 행하려면 먼저 불과 연기와 불꽃의 색상과
길상하게 성취되는 것과 성취되지 않는 법을 알아
야 한다. ... 만약 식재(息災)를 하는데 **불꽃이 흰색**
이면 이것은 가장 길상한 상이니, 행하는 것이 성
취되고 진언의 성취를 얻는다. ⁴⁶⁾

『대방광보살장문수사리근본의례경
(大方廣菩薩藏文殊師利根本儀軌經)』 第11卷

『대방광보살장문수사리근본의례경』에서는 식재 즉, 불의 힘을 이용해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의식을 치를 때 그 불꽃의 색 가운데 흰색을 길상한 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행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 흰색은 특별한 길상을 상징한다. 흰색을 길상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백불을 제작한 것이다.

백불은 다른 여러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부처는 인간과는 다른 형상을 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성립된 32상 80종호에 대해 설법하는 내용인 『대승백복상경(大乘百福相經)』에 백불이 등장한다.

문수사리아, 이와 같이 부처님 몸에 있는 수호(隨好)의 수를 간략히 말하면 80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육계(肉髻)가 높이 드러나 정수리를 볼 수 없고
... 예순일곱 번째는 흰 불자[白拂]의 형상이고, ...

45) 정명호, 앞 글, 1996, p. 56.

46) T1191 20:0874b18, 『大方廣菩薩藏文殊師利根本儀軌經』 第11卷, “作護摩者先須知火煙焰色相。吉祥成就不成就法。... 若是息災得火焰白色。是最上吉祥之相 所作成就得眞言成就”

문수사리아, 위에서 말한 것을 이름하여 ‘여래수상
 복덕(如來隨相福德)’이라 하고, 그 수가 한량없고 끝
 없는 억백천배로 쌓으면 여래 몸[如來身]의 하나의
 상[一相]이 된다.⁴⁷⁾

『대승백복상경(大乘百福相經)』

이와 같이 『대승백복상경』에서는 문수사리에게 80종호에 대해 설명하며
 백불을 이야기한다. 80종호를 여래수상복덕이라 칭하고 이것이 쌓여 비로
 소 부처의 몸이 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백불은 부처
 몸의 일부가 될 만큼 귀중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라니집경(陀
 羅尼集經)』에서는 백불을 공양의 도구로 표현한다. 백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인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리고 진언을 일곱 번 송하면, 하늘 위의 허공에
 있는 모든 날아다니는 약차와 마귀 등이 다 흩어져
 물러간다. 각각 인을 곁하고 진언을 일곱 번 송한
 다음에는 마땅히 스물한가지 공양의 도구를 베껴
 반야바라밀다 법회를 행해야 한다. 무엇을 이름하여
 스물한 가지라고 하는가? … **스물한 번째는 흰 불
 자[白拂]이다.** 이와 같이 승묘한 공양구들을 가지고
 지심으로 공양하면, 능히 인간세상의 왕 등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무시이래로 지은 10억과 5억의 모
 든 죄를 없애게 하고, 또 현재 구하는 것들을 마음
 대로 얻게 할 수 있다.⁴⁸⁾

47) T0661 16:0329c24, 『大乘百福相經』, “文殊師利! 如上所說. 名爲如來隨好. 福德積數
 滿足無量無邊億百千倍, 成如來身隨相一文福德之量. 如是隨相復有八十: 一者梵王像 … 六
 十七者白拂像 … 文殊師利! 如上所說, 名爲如來隨相福德. 積數滿足無量無邊億百千倍,
 合成如來身之一相”

『다라니집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자는 공양의 도구로서 등장한다. 하늘 위에 있는 야차와 마귀들을 물리치는 진언을 송한 후 스물한가지의 공양 도구를 가지고 반야바라밀다 법회를 행하는데 이 스물한가지의 공양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백불인 것이다. 반야바라밀다 법회를 통해 앞서 물리친 야차와 마귀들을 피안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공양도구로서의 백불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흰색을 특별한 길상의 색으로 보기 때문에 백불도 이러한 의미를 담아 제작한 것이라 생각한다. 덧불이자면 당시 흰 말 또는 흰 소가 흔하지 않은 귀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실제 주재료가 되는 흰털이 희소하여 귀하게 여겼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 38-1.
환성당 지안 진영
불자 용두.

다음 특징인 용두는 자루의 끝에 위치하며, 용의 코나 입에서 털이가 시작된다(도38-1). 용은 일반적으로 상상의 동물로 알려져 있다. 용은 불교에서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진다. 예를 들면 주술적 목적, 홍수와 가뭄을 다스리는 신의 상징, 미래를 예시하는 예언자의 상징, 왕권과 절대 권력의 상징, 호국과 호법신의 상징, 권위와 길상의 상징이다.⁴⁹⁾ 불자에 장식된 용두는 이 상징성 가운데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과 권위의 상징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그 증거로 첫째, 앞서 이야기한 상징성 가운데 불교적 의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호법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용은 누구보다 먼저 불법을 깨닫고 경전을 수호

48) T0901 18:0810b17, 『陀羅尼集經』, “以此印舉向頭上右旋三匝. 誦眞言七遍. 天上虛空一切飛行藥叉魔鬼等. 皆悉退散各誦印下眞言七遍. 當設二十一種供養之具. 作般若波羅蜜多法會. 隨力堪能[54]惟好精妙. 何等名爲二十一種 … 二十一白拂 … 以如是等勝妙之具. 至心供養. 能令人王等及一切衆生無始已來十惡五逆諸罪消滅. 復令現在所求隨意”

49) 이장혁, 「불교경전에 나타난 용의 상징성 연구」, 위덕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8, pp. 37-38.

하며 불교의 진리를 전하는 임무를 갖기 때문이다.⁵⁰⁾ 둘째, 불자는 선종에서 전법의 상징으로 표현되어왔으며 이것은 불자 안에 법을 담아 전달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불자를 들고 있는 진영의 주인공들은 특별한 업적이나 공을 세운 고승들로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39. 금동 당간 용두, 통일신라, 보물 제1410호, 국립대구박물관.



도 40. 금동 용두보당, 고려시대, 국보 제136호, 삼성리움미술관.



도 40-1. 금동 용두보당 용두 확대.

한편 불자에 표현된 용두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당간지주이다. 당간지주의 당간 위에는 용두가 올라가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금동 당간 용두와 삼성 리움미술관 소장 금동 용두보당이 있다(도39, 도40, 도40-1). 당간 위 용두의 역할은 불법을 수호하고 인간 세상에 정법(正法)을 펼쳐 이로움을 베풀고 부처와 보살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⁵¹⁾ 이는 앞서 이야기한 용의 상징성 가운데 불자에 대입했던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을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장식의 모양이 비슷한 당간 위의 용두와 불자의 용두는 모두 호법의 역할과 관련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특징인 유소가 있다. 불자에 나타나는 유소는 털

50) 이장혁, 앞 글, 2011, p. 96.

51) 엄기표, 「고려시대 당간과 당간지주」, 『文化史學』 11·12·13, 한국문화사학회, 1999, pp. 535-589.

이 안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도20-1). 유소는 한국 전통의 매듭 장식으로 악기, 번(幡), 연(輦), 국새(國璽)를 비롯한 의장물(儀仗物)과 각종 복식 등에 사용되었다(도41). 그러나 조선시대 말기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전통문화가 훼손되었고 근대화와 함께 서구 문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유소 또한 점차 사라져갔다.⁵²⁾ 유소는 실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불화(佛畵), 불번(佛幡), 연수식(輦垂飾) 등에 표현되어 하나의 중요한 장식, 또는 장엄요소로 사용되었다.⁵³⁾ 유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123년 쓰인 고려시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볼 수 있다. 고려도경은 송나라 휘종(徽宗, 재위 1100-1125)이 고려에 외교사신을 보낼 때 왔던 서긍이 고려에서 보고 들은 것을 서술한 책이다. 그 가운데 제 10권 「의물(儀物) 화개(花蓋)」조에 유소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 20-1.
자진국사 진영
불자의 유소



도 41.
『영정모사도감의궤』에
실린 유소

화개의 제도는 비단을 번갈아 꾸민 수(繡)사이에 엮어 만든다. 위는 육각으로 각각 유소가 나오는데, 모양은 패용하는 고리와 같고, 오색으로 띠를 드리워 서로 나란히 하며, 이로 인하여 방울 소리가 난다. 덮개는 세로 3척, 가로 6척, 길이 2장 5척으로 대례에는 금오장위군이 이것을 잡고 창합문 밖에 선다.⁵⁴⁾

52)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전통 매듭」, 2004, p. 20.

53) 국립중앙박물관, 앞 책, 2004, p. 93.

이와 같이 정확히 유소라는 표현을 쓰며 모양과 색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의물로 기록하고 있어 고려시대에는 유소를 의식용 장식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 42. 조선태조어진, 조선시대,
국보 제317호, 어진박물관.

아있는데 이것은 유소 제작 시 사용되는 재료에 관한 내용이다.⁵⁵⁾ 『어진이모도감의궤(御眞移摸都監儀軌)』에는 ‘1실 홍진사 동다회 매듭 2건’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것 또한 앞선 예와 마찬가지로 유소 제작에 사용된 재료를 명시해둔 기록이다.⁵⁶⁾

54) 『宣和奉使高麗圖經』 第10卷, 1123, “華蓋之制,交羅 … 繪繡,間錯爲之. 上有六角, 各出流蘇,狀如珮環. 五采垂帶相比, 仍有鸞聲. 其蓋縱三尺橫六尺長二丈五個, 大禮則以金吾仗衛軍執之, 立於閭闔門外.”

55) 『影幀摸寫都監儀軌』, 1688, “紅眞絲童多繪每緝流蘇 紅眞絲六分”. (박진영, 「조선시대 공신화상 유소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9, pp. 63-34, <표 11> 참고.)

56) 『御眞移摸都監儀軌』, 1872, “一室 眞紅絲 童多繪每緝流蘇具二件”. (앞 글, 2009, pp. 63-64, <표 11> 참고.)



도 43. 공신화상과 어진에 장식된 유소 비교.

한편, 공신화상을 장식하는 유소는 어진을 장식하는 유소와 조금 다른 형태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도43). 공신화상의 유소는 장식 없이 매끈한 다회인 반면 어진의 유소는 다회에 매듭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⁷⁾ 다시 말해 공신화상의 유소는 매듭 장식 없이 매끈한 다회를 사용하는 반면 어진에 사용한 유소는 다회에 4개의 꽃모양 매듭을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공신화상과 어진 유소는 다양한 색의 실로 만들어지는데 색상에 구분을 두고 격의 차이를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신화상의 매끈한 다회와 상반되는 어진의 매듭이라는 기준을 통해 왕과 공신 사이 확실한 격을 두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격을 두어 왕의 권위와 위엄을 강조한 것으로 추측한다. 이처럼 작품의 주인공에 따라 유소 장식의 모양이 달라 다양한 제작 방법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유소는 어진이나 초상화에 장식되어 주인공의 신분에 따라 권위와 위엄을 강조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특히 어진에 장식된 유소의 형태는 진영에 나타나는 유소와 유사한 것으로 유소가 장식된 불자를 들고 있는 주인공의 권위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57) 유소와 관련한 용어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의한 예가 없다. 본고에서는 박진영, 앞 글, 2009, pp. 63-34를 참고하여 매듭을 포함한 줄과 끝 부분의 수술을 모두 합쳐 유소라 정의하고 매듭부분을 매듭으로 줄 부분을 다회라 정의하였다.

다.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장식적 요소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유소가 불자에 장식됨으로 인하여 애초에 인도에서 사용되었던 생활용품이 아닌 어떠한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음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도 44. 나전 국화 넝쿨무늬 불자, 12세기, 42.7,
국립중앙박물관.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의 특징을 제외하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진영에 나타나는 불자의 자루길이다. 흥미롭게도 진영 안에서 불자 자루의 길이를 모두 다르게 표현한다. 불자 자루의 길이를 다르게 표현한 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 현존하는 완형의 불자는 없지만, 다행히 불자의 자루가 남아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나전 국화넝쿨무늬 불자로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한다(도44). 이 불자 자루는 홀겹과 두 겹의 국화와 넝쿨무늬로 장식되었는데 홀겹의 국화무늬는 거북이의 등껍질을 얇게 갈아 은은한 색을 내게 하는 대모복채(玳瑁伏彩)로 붉은색과 노란색을 표현했다. 두 겹의 국화무늬는 대모와 조개를 이용한 나전으로 장식하였다. 줄기에는 고려시대 나전칠기의 특징인 구리줄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현재 남아있지 않다.⁵⁸⁾ 우리나라에서 불자 자루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으나 조선시대 인문지리서로 알려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 40권 전라도 낙안군(樂安郡) 불우에 대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58) 중박도록각주

같다.

김돈중(金敦中)의 시에, “우연히 산 가 절에 이르니,
향 연기 속에 한 방(室)이 열려 있네. … 좋은 차
(薺)는 눈(雪)이 찻잔에 번득이고 맛난 술은 안개가
잔에 어리네. 맑은 바람 옥병(玉柄)을 따라서 삼삼
(颯颯)하게 사람에게 스치네.” 했다.⁵⁹⁾

『신증동국여지승람』 第40卷

여기서 말하는 옥병이란 옥으로 만든 불자 자루를 말한다. 예전 진(晉)나라 사람들이 불자의 자루를 사치스럽게 만들기 위해 옥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부를 때 옥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것과 비슷한 예로 조선중기의 학자 신익성의 시문집인 『낙전당집(樂全堂集)』에 유리로 만든 자루를 언급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훈사에는 나옹화상의 푸른색 사리를 보관하고
있다. … 불자(拂子)는 붉은 마노와 유리로 자루를
만들었는데 또한 진귀하였다. … ⁶⁰⁾

『낙전당집』 第7卷

「내외금강산유람기(遊金剛內外山諸記)」

마노란 드물지만 관옥(管玉)이라 부르기도 하는 석영질의 보석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단단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돌을 모두 옥이라고 분류했기 때문에 마노 또한 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때문에 『낙전당집』에서 이야기하는 불자의 자루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옥병은 큰 차이가 없을

59) 『新增東國輿地勝覽』 第40卷, “金敦中詩偶到山邊寺 香烟一室開 … 薺雪翻盃湘醴霞激杯 清風□玉柄颯颯逼人來.”

60) 『樂全堂集』 第7卷 「遊金剛內外山諸記」, “寺中藏懶翁舍利珠青色者 … 拂子以赤瑪瑙爲柄, 亦可珍也. …”

것으로 생각한다. 자루를 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불자로 사치스러움을 표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루만 남아있는 고려시대 불자는 누가 사용했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당시 최고의 재료로 불자를 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이다.

불자가 나타나는 조선후기 진영을 참고하면 불자의 자루는 일반적으로 나무를 사용하여 제작했다. 진영에서 불자 자루의 재질을 비롯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옥과 같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자루는 확인할 수 없다.

앞서 고려시대 불자 자루의 예를 통해 자루의 제작에 나무뿐만 아니라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 실물 불자에도 옥과 같은 귀한 재료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아쉽지만 현존하는 불자의 자루가 단 1점뿐이라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인 할 수 있는 점은 자루의 길이가 길어지면 짧은 자루를 가진 불자에 비해 털이도 길어지고 그와 더불어 유소장식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공통 특징들을 지닌 18세기 진영의 불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⁶¹⁾

자루 길이	용두	유소	작품명	연도
短	X	X	송광사 국사전 청진국사 진영	1780년
			송광사 국사전 자정국사 진영	1780년
			송광사 국사전 자각국사 진영	1780년
			송광사 국사전 담당국사 진영	1780년

61) < 표2 >에서 자루의 길이는 短: 진영 상 주인공의 팔 길이보다 짧은 것, 中: 주인공의 팔 길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긴 것, 長: 주인공의 팔보다 길거나 앞은키보다 긴 것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송광사 국사전 각엄국사 진영	1780년
			송광사 국사전 정혜국사 진영	1780년
			송광사 국사전 홍진국사 진영	1780년
			동화사 사명당유정 진영	1796년
中	O	O	범어사 의상대사 진영	1767년
			용추사 송운대사 진영	1781년
			대곡사 유명조선국 대광보국 승대장 사명당 진영	1782년
	X	O	봉정사 포월당 대선사 초민 진영	1766년
			봉정사 송운당 대선사 진영	1768년
			용추사 무학대사 진영	1781년
			용추사 각연대사 진영	1781년
			월정사 범일국사 진영	1788년
	X	X	송광사 국사전 해감국사 진영	1780년
			해인사 국일암 벽암선사 진영	1780년
			청허당집 청허당 진영	1794년
長	O	O	송광사 국사전 진각국사 진영	1780년
			송광사 국사전 자진국사 진영	1780년
	O	X	통도사 환성당 지안 진영	1799년
	X	O	대곡사 대덕안국 청허당 대선사 진영	1782년
			대곡사 서천국조사 지공, 공민왕사 나옹, 태조왕사 무학대화상 진영	1782년

<표 2> 18세기 진영에 나타나는 불자의 특징 분류

<표 2>를 살펴보면 자루의 길이가 짧은 경우 용두와 유소 장식이 모두 없는 것이 특징이며 대신 자루와 털이가 만나는 지점에 자루머리가 표현되고 있다. 그 예로 송광사 국사전 청진국사 진영, 자정국사 진영, 자각국사 진영, 담당국사 진영, 각엄국사 진영, 정혜국사 진영, 홍진국사 진영과 동화사 사명당 유정 진영이 있다. 자루의 길이가 중간일 경우 장식이 없는 것과 있는 것, 용두를 제외한 유소만 나타나는 것으로 나뉜다. 장식이 모두 있는 것은 범어사 의상대사 진영, 용추사 송운대사 진영, 대곡사 유

명조선국 대광보국 승대장 사명당 진영이 있으며 장식이 모두 없는 경우는 송광사 국사전 해감국사 진영, 해인사 국일암 벽암장자 진영, 청허당집 청허당 진영이 있다. 용두가 없이 유소만 장식된 것은 봉정사 포월당 대선사 초민 진영, 송운당 대선사 진영, 용추사 무학대사 진영, 각연대사 진영, 월정사 범일국사 진영이 해당한다. 자루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장식이 모두 있는 것, 용두와 유소가 각각 단독적으로 표현되는 것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 장식이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는 송광사 국사전 진각국사 진영, 자진국사 진영, 대국사 서천국조사 지공, 공민왕사 나옹, 태조왕사 무학대화상 진영이 있으며, 용두는 있으나 유소가 없는 것으로는 통도사 환성당 지안 진영이 있다. 용두가 없이 유소만 나타는 것은 대국사 대덕안국 청허당 대선사 진영이 있다. 불자의 자루가 長에 해당하면서 장식이 전혀 없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아 자루가 긴 불자가 자루가 짧은 불자에 비해 보다 장식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자루가 짧은 불자는 8점으로 모두 장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루머리를 강조하여 그렸다. 자루가 중간 길이어거나 긴 불자의 경우는 16점이며 그 가운데 장식이 하나라도 표현된 것이 13점이다. 무려 81.2%의 확률로 장식이 표현되고 있어 자루의 길이에 따라 장식 여부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기준으로 장식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인 13점을 전체 값으로 설정하여 정리하면 <표 3> 같다.

분류	자루 길이	작품명	합계
용두 단독	長	통도사 환성당 대화상 진영	1점 (7.6%)
유소 단독	中	봉정사 포월당 대선사 초민 진영	7점 (53.8%)
		봉정사 송운당 대선사 진영	
		용추사 무학대사 진영	
		용추사 각연대사 진영	

	長	월정사 범일국사 진영	
		대곡사 대덕안국 청허당 대선사 진영	
		대곡사 서천국조사 지공, 공민왕사 나옹, 태조왕사 무학 대화상 진영	
용두와 유소	中	범어사 의상대사 진영	5점 (38.4%)
		용추사 송운대사 진영	
		대곡사 유명조선국 대광보국 승대장 사명당 진영	
	長	송광사 국사전 진각국사 진영	
		송광사 국사전 자진국사 진영	

<표 3> 18세기 진영에 나타나는 불자의 장식 현황

<표 3>과 같이 용두가 단독으로 표현된 경우는 1점으로 7.6%, 유소가 단독으로 표현된 경우는 7점으로 53.8%, 용두와 유소가 모두 표현된 경우는 5점으로 38.4%에 해당한다. 자루의 길이가 길고 짧음에 따라 장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중간 길이와 긴 길이의 자루의 장식에서는 큰 차이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자루의 길이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불자가 가장 많이 남아있으며, 같은 시기에 제작한 송광사의 십육국사 진영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송광사의 십육국사 진영은 1780년에 동시에 제작되었다. 주인공은 모두 국사로 국사란 나라의 스승이 될 만한 고승대덕에게 부여하던 칭호이다. 그들의 존명과 지물을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⁶²⁾

존명	육환장 (六環杖)	불자 (拂子)
제 1세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O	X

62) 송광사·순천시, 『보물 제 1043호 순천 송광사 십육조사진영 보존처리 및 모사제작 보고서』, 2014, pp. 95-105.

제 2세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	X	X
제 3세 청진국사(淸眞國師) 몽여(夢如)	X	O
제 4세 진명국사(進明國師) 혼원(混元)	X	X
제 5세 자진국사(慈眞國師) 원오(圓悟)	X	O
제 6세 원감국사(圓鑑國師) 충지(冲止)	X	X
제 7세 자정국사(慈靜國師) 일인(一印)	X	O
제 8세 자각국사(慈覺國師) 도영(道英)	X	O
제 9세 담당국사(湛堂國師)	X	O
제 10세 혜감국사(慧鑑國師) 만항(萬恒)	X	O
제 11세 자원국사(慈圓國師) 묘엄존자(妙嚴尊者)	X	X
제 12세 혜각국사(慧覺國師)	X	X
제 13세 각진국사(覺眞國師) 복구 각엄존자(復丘 覺嚴尊者)	X	O
제 14세 정혜국사(淨慧國師)	X	O
제 15세 홍진국사(弘眞國師)	X	O
제 16세 고봉화상(高峯和尚) 법장(法藏)	X	X

<표 4> 순천 송광사 국사전 십육국사진영의 존명과 지물

십육국사 가운데 불자를 지물로 들고 있는 국사는 총 10명으로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서도 자루의 길이가 길고 장식이 있는 불자를 들고 있는 국사는 제 2세 진각국사와 제 5세 자진국사로 단 둘뿐이다. 이와 같이 같은 연도에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자의 장식과 자루의 길이가

다른 것이 존재한다. 때문에 같은 국사라 하더라도 그들의 업적은 모두 달라 먼저 그들의 업적이나 법랍(法臘)에 따라 자루의 길이와 불자의 장식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았다.⁶³⁾



도 45. 『선문염송』, 삼국시대 성현사
1234년 57세, 법랍 32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⁶⁵⁾

먼저 제 2세 진각국사의 경우 보조국사의 수제자로 그 뒤를 이어 수선사 제 2세가 된 인물이다. 그는 25세에 출가하여 33세에 수선사의 제 2세가 되었다. 그는 49세에 되던 해 제자들의 불법(佛法)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가(禪家)의 옛 화두 1,125칙(則)과 여러 선자들의 염송(拈頌)을 모아 『선문염송(禪門拈頌)』을 편찬하였다(도45). 더 나아가 그는 선가의 이치를 철저하게 굳히고 고려시대 왕실을 중심으로 잘못된 신앙풍조(信仰風潮)를 교화하는 역할도 수행한 인물이다.⁶⁴⁾ 그는

제 3세 청진국사는 고려시대 문인인 이규보와 가까웠다고 전해지며 그의 스승인 진각국사 혜심의 비를 세울 정도로 혜심의 법을 이은 인물이다.⁶⁶⁾ 또 몽고 침략의 어수선한 정세에 잃어버렸던 혜심의 『선문염송』을 다시 헤아려 추가적으로 347칙을 첨가하여 혜심의 제자로서 크게 공헌하였다. 청진국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그가 언제 태어나 출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진각국사가 입적한 1234년부터 그가

63) 십육국사 중 지물이 표현되지 않은 여섯 명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으며 제 1세 보조국사 지눌의 경우 육환장을 들고 있다.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조계종을 창시하고 팔공산 수선사를 창건하는 등의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운 인물이다. 이에 필자는 육환장을 들고 있는 인물의 위계가 불자를 들고 있는 인물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64) 송광사·순천시, 앞 책, 2014, p. 102.

65) 진각국사 혜심에 대해서는 최은희, 「교육의 관점에서 본 진각국사 혜심의 일생」, 『동아시아불교문화』 17,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4, pp. 237-275 참조.

66) 황인규, 「목우자 지눌의 선풍과 고려 후기 조선 초 불교계의 고승 등 - 수선사계 고승들의 사법관계와 그 선풍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19, 보조사상연구원, 2003, p. 265.

입적한 1252년까지 제 3세로서 활약한 것을 알 수 있다.⁶⁷⁾ 이것으로 보아 그의 법랍은 최소 18세 이상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제 5세 자진국사는 1256년 진명국사의 뒤를 이어 제 5세가 되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질이 뛰어나 신동으로 불리었다. 15세에 혜심의 밑에서 득도하여 3년 후 담선법회(談禪法會)에 나아가 좌석의 으뜸으로 거듭났다. 1249년에는 최우가 창건한 창복사의 주맹(主盟)을 하고 다음 해 선원사의 주(主)가 되었다. 그는 불대사를 창건하였고 1256년 조계산의 제 5세가 된 후 30년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⁶⁸⁾ 충렬왕(忠烈王, 재위 1274-1308)의 부탁을 받아 1286년 불대사에 주석하며 이곳에서 마지막 설법을 하고 72세, 법랍 57세로 입적하였다.

제 7세 자정국사와 8세 자각국사는 생물연대를 비롯한 업적도 알려진 바가 없다. 이들은 원의 고려지배기간에 법맥을 이은 것으로 추측한다. 따라서 조계산 수선사의 활동도 그 힘을 잃었던 것으로 생각한다.⁶⁹⁾

제 9세 담당국사는 흥미로운 설화가 전해진다. 그 내용은 그가 중국 금나라 장종(章宗, 재위 1189-1208)의 셋째 아들이라는 것과 장종의 황후를 치료하러 간 보조국사 지눌을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측한다. 지눌이 금나라에 다녀왔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전기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원(原)에서 1343년에 고려로 건너온 구법승(求法僧) 성징(聖澄의) 자(字)가 담당이라는 것을 보아 성징이 곧 담당국사인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제 10세 해감국사가 수선사 주지가 되었던 것이 1313년 전후로 알려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보다 30년이나 늦은 시기의 성징이 담당이었을 것이라는 추측 또한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된다.⁷⁰⁾ 따라서 담당국사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 10세 해감국사에 대해 살펴보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린나

67) 송광사·순천시, 앞 책, 2014, p. 103.

68) 엄기표, 「고려 후기 송광사 출신 16국사의 석조부도 연구」, 『문화사학』 29, 한국문화사학회, 2008, p. 59.

69) 송광사·순천시, 앞 책, 2014, pp. 106-107.

70) 송광사·순천시, 앞 책, 2014, p. 107.

이에 출가하여 1313년에 충선왕(忠宣王, 1308-1313)이 개최한 법회에 초빙되어 강론을 하였다. 충선왕은 매우 높은 예우로 혜감국사를 대했고 심지어 자신이 타던 어가를 타고 귀환하도록 했다. 그는 1319년 71세의 나이로 입적하였고 법랍은 그의 출가 나이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알 수 없다.

제 13세 각진국사는 10세에 원오국사 밑에서 출가하여 자각국사를 따라 공부하였다. 그는 충정왕(忠定王, 재위 1349-1351)의 왕사(王師)가 되어 그때 각엄존자라는 존호(尊號)를 받았다. 공민왕(恭愍王, 재위 1351-1374)도 그를 왕사로 책봉하였는데 당시 그의 나이가 83세였다. 당시 그는 불갑사에 머물고 있었다. 때문에 공민왕은 험한 길에 그의 나이까지 생각해 궁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그의 진영을 그려 예 거행했다고 한다. 그는 1355년 85세의 나이로 입적했으며 법랍은 75세였다.⁷¹⁾

제 14세 정혜국사와 제 15세 홍진국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나 정혜국사는 1350년 제 14세로 활약을 시작했으며 홍진국사는 1353년 제 15세로서 활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들의 생몰연대나 업적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입적연대만 정혜국사는 공민왕대를 넘기지 않았다는 것과 홍진국사는 나옹이 왕사에 부임하던 1371년으로 추정한다.⁷²⁾

이와 같이 송광사 십육국사진영에서 불자를 든 국사들의 업적과 법랍을 알아보았다. 모두 국사인 만큼 대단한 업적을 많이 남긴 인물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 업적을 알 수 없는 인물들도 있었다. 법랍 또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전체를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자루가 짧은 불자를 든 인물들은 왕사를 지내거나 많은 제자를 양성하는 등의 업적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십육국사 가운데 제 2세 진각국사와 제 5세 자진국사만이 자루가 길고 장식이 표현된 불자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그들 모두 각자 저서

71) 송광사·순천시, 앞 책, 2014, p. 109.

72) 송광사·순천시, 앞 책, 2014, p. 111.



도 46. 청허하 제철세 설허당 지첨 진영, 조선후기, 138×96, 직지성보박물관.



도 47. 백련당 대선사 상림 진영, 조선후기, 110.4×79, 직지성보박물관.



도 48. 보각등계 동봉 대화상 인법당. 진영, 조선후기, 115×76.5, 인법당.

를 남겼거나 사찰을 창건하였거나 하는 개별적인 업적이 있을 뿐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루가 짧은 불자를 들고 있는 인물들에 비해 조금 더 특별한 업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진각국사는 『선문염송』을 비롯한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1권, 『금강경찬(金剛經贊)』 1권 등의 다양한 저서를 남겼으며 자진국사의 경우 불대사를 창건하는 업적을 세운 것이다. 업적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이들이 많아 아쉽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진각국사만큼 많은 저서를 남긴 인물이 없고 자진국사처럼 사찰을 창건한 인물 또한 없었다. 때문에 필자는 자루가 길고 장식이 표현된 불자를 든 인물이 상대적으로 업적이 더 뛰어나 위계가 높은 것은 아닌지 추정해 보았다. 이를 보다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조선후기에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진영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루가 긴 불자를 들고 있음에도 자세한 업적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김룡사 청허하 제철세 설화당 지첨 진영과 백련당 대선사 상림 진영, 대승사 묘적암 보각등계 동봉 대화상 진영 등이 있다(도46~도48). 설화당 지첨은 청허당의 제자인 것을 제외하면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상림과 동봉은 전해지는 기록을 찾기 어려웠다. 이들 모두 진영이 그려질 정도로 당시 뛰어난 고승이었지만 아쉽게도 전해지는

기록이 적어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업적에 따라 자루의 길이가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 해인사 개산조사 순응대덕 진영의 주인공인 순응은 해인사를 창건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루가 짧은 불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도49). 이처럼 자루가 긴 불자를 들고 있는 주인공 가운데 자세한 업적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고 자루가 짧은 불자를 들고 있지만 사찰을 창건하는 등 많은 업적이 알려진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송광사 십육국사의 경우 자루의 길이가 승려의 업적과 위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예를 살펴본 결과 자루 길이와 승려의 업적, 위계 사이에 큰 연관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물이 위계가 낮은 걸코 것은 아니다. 특히 송광사 십육국사진영의 주인공들은 당시 정신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국사로 추앙받을 만큼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아울러 지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사라도 선종과 교종을 통합한 지눌이 창건하고 십육국사를 배출해낸 동방 제일의 도량으로 알려진 수선사의 주지를 지낸 이들이기도 하다.



도 49. 개산조사순응대덕진영,
조선후기, 105.5×80.9,
해인사성보박물관.

지금까지 18세기 진영에 나타나는 불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18세기 진영에 나타나는 불자는 자루의 길이부터 털이의 길이와 양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루 길이에 따라 용두 또는 유소를 장식한 백불이라는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불자는 그 자체의 상징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불자 자체의 큰 양식 및 형식의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현재 남아있는 실물 불자는 표충사에 소장된 사명대사의 유품으로 세

점이 전해진다(도50).⁷³⁾ 이것들은 모두 백불이며 유소가 확인된다. 또한 털이의 길어도 다양하게 남아있어 앞서 살펴본 진영 속 불자가 실제 승려들이 사용했던 것을 기반으로 그려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표충사 실물 불자는 세 점 모두 자루를 잃고 털이만 남아있어 앞서 18세기 진영에 등장하는 불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꼽았던 용두와 자루의 길이를 비교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도 50. 불자(拂子), 길이 81cm, 86cm, 54cm, 표충사.



도 51. 일명진영, 1766년 추정, 121×75.7, 경상북도 유형문유형문화재 제328호, 안동 봉정사.

한편 진영에 나타나는 지물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주장자(拄杖子)이다(도51). 주장자는 수행승이 지니고 다니는 지팡이로 단순히 땅을 짚는 용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는 지팡이를 허공을 날아다니거나 막힌 길을 갈라지게 하는 등 지팡이의 영험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⁷⁴⁾ 아울러 보현보살이 보살

73) 사명대사에 대해서는 오준호, 「사명유정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참조.

74) T2087 51:0917a02, 『大唐西域記』 第8卷, “... 몸가짐이 반듯하고 위엄에 넘치는 어떤 사문이 나타났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허공을 타고 와서 물에 빠질 뻔한 그들을 건져

이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200가지 수행내용을 설법한 것을 정리한 『도세품경(度世品經)』에서도 지팡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살의 지팡이[杖]에 열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보시의 지팡이[布施杖]**로 모든 간탐을 해치고, 금계의 업을 닦아 온갖 악(惡)을 범하는 일을 무너뜨려 없애며, **법의 지팡이[法杖]**로 허망한 생각을 버리도록 권하고, 지혜로 중생의 진로와 애욕을 끊으며, **바른 업의 지팡이[正業杖]**로 온갖 밝지 못한 생각을 멀리 여의고, **선권의 지팡이[善權杖]**로 널리 자신의 음욕·성냄·어리석음의 어지러움을 나타내며, 보살은 모두 법의 지팡이로 중생의 온갖 애욕과 더러움의 문을 소멸하고, 생사(生死)에 있더라도 곧 지혜의 힘으로 더러운 행[穢行]을 끊어 주면서 교화하며, 하나의 법의 지팡이를 강설하여 모든 의지함[依倚]을 파괴하고, 온갖 지혜의 문으로 모든 거꾸로 가는 지계문[反逆戶]을 없애 버리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보살이 갖고 있는 열 가지 지팡이입니다.…⁷⁵⁾

『도세품경』 第4卷

준 뒤에 순식간에 본국으로 데려다 주었다. …”, “… 俄見沙門，威儀庠序，杖錫[12]凌虛，而來拯溺，不踰時而至本國矣 …”，T2087 51:0919b24, 『大唐西域記』 第9卷, “… 산봉우리는 몹시 험하였고 벼랑을 타고 난 길은 막혀 있었다. 그리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두드리니 베어내듯 갈라졌다. …”, “…山峯險阻，崖徑繁薄，乃以錫扣 …”. T2087 51:0924c03, 『大唐西域記』 第9卷, “… 제석천왕이 마나파(摩那婆)로 모습을 바꾸어 머리에는 상투를 얹고 왼손에는 금으로 만든 병을 들고 오른손에는 보석이 박힌 지팡이를 들었는데, 그는 땅으로부터 네 손가락 마디만큼 떨어진 허공을 밟고 있었다. …”, “… 時帝釋天王變爲摩那婆，首冠螺髻，左手執金瓶，右手持寶杖，足蹈空虛，離地四指 …”.

- 75) T0292 10:0642a24, 『度世品經』 第4卷, “… 菩薩杖有十事。何謂爲十? 以布施杖害諸慳貪，修禁戒業壞除一切犯衆惡事，等勸法杖消去妄想，則以智慧斷截衆生塵勞愛欲，以正業杖遠離一切不曉活業，以善權杖普自現身姪怒癡亂，菩薩皆以法杖消化衆生一切愛欲衆暇穢門，其在生死則以慧力斷爲穢行而開化之，講一法杖破壞一切諸所依倚，一切智門能爲消去諸反

위 기록에서는 지팡이의 역할을 나열하고 있다. 특히 온갖 악과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과 지혜를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주장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진영에서 주장자는 고승의 지물로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영험함이나 지혜를 상징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실용성이 우선일 것이다.

반면 고승의 진영이 아닌 나한도, 산신도에서도 불자가 등장하고 있다. 먼저 나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나한신앙은 기본적으로 인도에서 시작되었다. 나한이란 범어 Arhat를 한역한 말이다. 이 말은 ‘번뇌를 모두 끊어버린 최고로 이상적인 사람’을 뜻한다.⁷⁶⁾ 그러나 십육나한, 오백나한과 같이 무리를 이루어 본격적으로 신앙화된 것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⁷⁷⁾ 그 중에서도 십육나한은 석가모니의 수기(授記)에 따라 미륵이 올 때까지 이 땅에 남아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맡은 불제자들로 나한의 성격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구성이다.⁷⁸⁾ 한국에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나한신앙이 유행하였다. 고려시대는 특히 호국을 기원하는 성격이 두드러져 침략으로 인해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나한불사가 자주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는 장수와 추복을 기원하는 성격이 두드러져 국왕이나 왕실의 인물들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나한불사가 성행하였다.⁷⁹⁾ 이러한 이유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나한도가 제작되었지만 본고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진영과 마찬가지로 18세기 나한도를 중심으로 살펴볼도록 하겠다.

18세기에 제작된 나한도 가운데 불자가 등장하는 것은 순천 송광사 16나한도, 순천 선암사 33조사도, 상주 남장사 나한도가 있다(도52~57, 도

逆戶，是爲菩薩所執十杖 …”.

76) 이승주, 「송광사 응진당 십육나한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7, p. 4.

77) 신광희, 「한국의 나한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0, p. 152.

78) 신광희, 「상주 남장사의 위상과 나한도」, 『문학/사학/철학』 47, 한국불교사연구소, 2016, p. 181.

79) 신광희, 앞 글, 2010, p. 285.

58~64, 도65~66).⁸⁰⁾



도 52. 웅진당 16나한도(1, 3, 5존자), 1725년, 123X183, 보물 제1367호, 송광사 성보박물관.



도 53. 웅진당 16나한도(2, 4, 6존자), 1725년, 122X187, 보물 제1367호, 송광사 성보박물관.



도 55. 웅진당 16나한도(8, 10존자), 1725년, 123X102, 보물 제1367호, 송광사 성보박물관



도 54. 웅진당 16나한도(7, 9존자), 1725년, 120X97.5, 보물 제1367호, 송광사 성보박물관

80) 순천 송광사 16나한도에 대해서는 이승주, 앞 글, 2007 참조. 송광사 16나한도는 1725년 조성된 것이다. 일정한 규칙이 정해진 다른 불화와는 다르게 그리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 이 16나한도는 조선후기 불화 중 가장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순천 선암사 33조사도에 대해서는 이영숙, 「선암사 33조사탱화」, 『불교문화연구』 4, 남도불교문화연구회, 1994, pp. 91-103 참조. 선암사 33조사도는 1753년 조성되어 현재는 7폭만 전해진다. 33조사는 당대(唐代)에 쓰여진 『조당집(祖堂集)』에 제 1조부터 제 33조까지의 선사의 존명과 관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제 1조부터 제 28조까지는 천축승, 제 29조에서 33조까지의 다섯 승려는 중국승려로 구분할 수 있다. 상주 남장사 나한도에 대해서는 신광희, 앞 글, 2016, pp. 177-190 참조. 1790년에 조성된 남장사 나한도는 화승 영수와 상겸이 함께 그린 작품이다. 17세기에서 18세기 전반까지 유행한 십육나한 조각의 도상과 당시 궁정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책거리의 도상이 함께 나타나 주목된다. 이 나한도는 총 두 폭으로 한 폭에는 홀수 존자인 제 7, 9, 11, 13, 15존자를 다른 한 폭에는 짝수 존자인 제 8, 10, 12, 14, 16존자를 그렸다. 이 두 폭은 조선후기의 배치방식인 좌측에 홀수존자, 우측에 짝수존자의 배치를 따르고 있다.



도 56. 응진당 16나한도(11, 13, 15존자), 1725년,
120.5X151.5, 보물 제1367호, 송광사 정보박물관.



도 57. 응진당 16나한도(12, 14, 16존자), 1725년,
123X152.5, 보물 제1367호, 송광사 정보박물관.



도 58. 팔상전 33조사도(석가모니, 1, 2조사),
1753년, 139X191.5, 선암사 정보박물관.



도 59. 팔상전 33조사도(17, 19, 21조사),
1753년, 136.5X190.5, 선암사 정보박물관.



도 60. 팔상전 33조사도(23, 25조사),
1753년, 136X142.5, 선암사 정보박물관.



도 61. 팔상전 33조사도(27, 28, 29, 30조사),
1753년, 136X235.5, 선암사 정보박물관.



도 62. 팔상전 33조사도(31, 32, 33조사),
1753년, 135.7X222.5, 선암사 정보박물관.



도 63. 팔상전 33조사도(16, 18, 20조사),
1753년, 139X221, 선암사 정보박물관.



도 64. 팔상전 33조사도(22, 24, 26조사),
1753년, 134.5X220, 선암사 정보박물관.



도 65. 상주 남장사 나한도(7, 9, 11, 13, 15존자), 1790년, 112X219, 직지정보박물관.



도 66. 상주 남장사 나한도(8, 10, 12, 14, 16존자), 1790년, 112X219, 직지정보박물관.



도 53-1. 웅진당 16나한도
6존자 확대.



도 55-1. 웅진당
16나한도 10존자 확대.



도 62-1. 팔상전 33조사도
32조사 확대.

먼저 순천 송광사 16나한도의 6존자가 짧은 자루인 백불을 들고 있다(도53-1). 오른손으로 털이를 쥐고 있으며 왼손으로는 자루를 쥐고 있다. 앞서 살펴본 짧은 불자와 같이 유소나 용두 등의 장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10존자 또한 불자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자루가 짧은 백불을 들고 있으며 왼손은 털이를 쥐고 오른손은 자루를 쥐고 있다(도 55-1). 장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선암사 33조사도의 32조사인 홍인(弘忍)이 짧은 자루의 백불을 쥐고 있다(62-1). 왼손으로 털이를 쥐고

오른손으로는 자루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같은 작품의 18조사 가사사다(伽邪舍多)도 백불을 가지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 아닌 긴 지팡이 끝에 자루가 짧은 불자를 매달아둔 모습을 보이고 있다(도63-1). 선암사 나한도도 마찬가지로 장식은 없다. 마지막으로 상주 남장사 나한도의 제 14존자인 벌나존자(伐蘿尊者)가 불자를 들고 있는데 장식이 없는 짧은 자루의 백불을 오른손에 털이를 왼손에 자루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도66-1).



도 63-1. 팔상전 33조사도 18조사 확대.

도 66-1. 상주 남장사 나한도 14존자 확대.

앞서 언급한 고승진영, 나한도 이외에도 산신도에도 불자가 등장한다. 산신신앙은 산악을 신성하게 여겨 산을 인격화한 산신, 산령 혹은 산신령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는 행위이다.⁸¹⁾ 이러한 토착신앙이 불교에 수용되어 불법과 가람의 수호하는 신중으로 자리 잡았다.⁸²⁾ 18세기 제작된 산신도 가운데 불자가 등장하는 작품은 현재 함양 용추사에 1점 전해지고 있다(도67). 여기서 산신이 가지고 있는 불자는 앞서 살펴본 선암사 18조사가 들었던 것처럼 긴 주장자에 자루가 짧은 불자를 매달아 둔 모습이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적인 것은 짧은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털이에 장식이

81) 손진, 「한국불화의 산신신앙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8, p. 6.

82) 손진, 앞 글, 2008, p. 52.

확인되고 있다.



도 67. 산신도, 1788년, 91.5X59.8,
함양 용추사.



도 68. 이현보초상, 16세기, 126X105, 개인소장.

지금까지 확인된 불자가 등장하는 나한, 산신도에서는 모두 자루가 짧은 백불이 확인되었다. 모두 장식이 확인되지 않지만 용추사에 소장된 산신도에서 예외적으로 자루가 짧은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식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흥미롭게도 고승이나 나한이 아닌 문인이 드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문인인 이현보 초상이다(도68). 이현보는 1467년 영천에서 태어나 연산군 4년(1498)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하고 1506년 중종반정 후 밀양·안동의 부사, 충주목사를 지냈다. 충주목사를 지낼 때 선정(善政)을 베풀어 왕으로부터 표리(表裏)를 하사 받았고 병조참지·동부승지·부제학·경사도관찰사를 지냈다. 1542년에는 호조참판, 다음해 상호군이 되고 자헌대부에 올랐다. 1554년에는 중추부지사가 되었으며 여러 시가(詩歌)를 지었다. 그가 남긴 저서로는 『농암집』이 있다. 이현보는 3대의 조정이 바뀌는 동안에도 충애를 받아 쉬지 않고 관직에서 일했으며 그가 병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나려 하였을 때에도, 또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관직에 나가 일하기 어려운 때에도 항상 왕의 부름을 받았다. 1528년에는 늙은 아버지가 먼 곳에 있어 가까운 곳으로 근무지를 바꾸고 1533년 연로한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할까 두려워해 휴가를 청하며 지극한 효심을 보여주기도 했다.⁸³⁾ 그는 1551년 사직을 청했으나 명종(明宗, 재위 1534-1567)이 불허하였고 나이가 90세에 가까워서야 사직할 수 있었다.⁸⁴⁾ 1555년 그가 죽던 해 소식을 들은 명종이 크게 섭섭해하며 동시에 측은함을 느낄 정도로 그는 유능한 관리였다.⁸⁵⁾ 이현보는 이렇게 여러 왕의 총애를 받고 효심이 지극한 어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⁸⁶⁾ 이현보의 초상은 동화가의 옥준상인(玉琿上人)이라는 승려가 1536년 그가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시절 그린 것이다. 이 초상화에서 이현보는 오른손에 불자를 쥐고 왼손에 금서대(金犀帶)를 권 모습이다.⁸⁷⁾ 그러나 아

83) 『朝鮮王朝實錄』 「中宗實錄」 第76卷 중종 28년 10월 29일 戊戌 2번째 기사, “... 天恩罔極, 未卽歸養, 然父齒極老, 幸有大故, 恐未得相見, 情迫敢啓. ...”.

84) 『朝鮮王朝實錄』 「明宗實錄」 第12卷 명종 6년 8월 16일 辛未 1번째 기사, “... 신을 체직하라고 명하셔서 안심하고 죽음을 기다리게 해주소서. ...“... 伏望命遞臣職, 俾得安心待死. ... 然不遞卿職, 此乃尊賢尚德之事, 勿辭.”.

85) 『朝鮮王朝實錄』 「明宗實錄」 第18卷, “이현보는 여러 차례 불러도 오지 않더니 이제 죽었다. 내가 측은하게 여긴다. 치제(致祭)와 부의(賻儀)하는 일들을 각별하게 하라.”, “李賢輔累召不至, 今也則亡. 予甚惻然. 祭賻等事, 各別爲之.”.

86) 『朝鮮王朝實錄』 「明宗實錄」 第18卷 명종 10년 6월 28일 辛卯 3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이현보(李賢輔)가 졸하였다.(이현보는 영천(永川) 사람이다. 약관(弱冠)에 글 읽기를 시작했는데 글을 지으매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연산조에 급제하여 사관(史官)이 되었는데, 사관은 임금의 언어와 동작을 기록하므로 옆드려 멀리 있음은 불편하다는 것을 들어 조금 가까이 있게 하길 계청하였다. 폐주(廢主)는 마음에 거슬리면서도 그대로 운허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일을 말하다가 뜻을 거슬러 귀양 갔다. 중종조에는 여러 관직을 거쳐 사간에 이르렀고 그 뒤에는 여러 차례 아버지 봉양을 위해 외직(外職)으로 나갔는데 가는 데마다 명성과 공적이 있었고 호조 참판으로 있다 은퇴하여 고향에서 지내었다. 중종조와 인종조에 그의 조용히 은퇴한 것을 아름답게 여겨 품계를 올려 소환했지만 모두 오지 않았다. 금상조(今上朝)에도 명소(命召)했지만 또한 극력 사양하고 이어 상소하여 일을 논했는데 당시의 병폐를 아주 잘 맞추었다. 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으며 담박하고 욕심이 없어 시골에 있을 때에는 일찍이 사사로운 일로 관에 청탁하는 일이 없었으며 오직 유유자적하며 살았다. 근래에 만년의 지조가 완전하였던 사람으로 이현보를 으뜸으로 친다.)”, “知中樞府事李賢輔卒. (賢輔, 永川人. 弱冠始讀書爲文, 爲流輩所推. 燕山朝, 登第爲史官. 以史官記人主言動, 而俯伏在遠爲不便, 啓請稍近. 廢主心拂而且許之, 未幾言事忤旨被竄. 及中廟朝累官至司諫, 其後屢爲便養乞外, 皆有聲績, 以戶曹參判, 退老于鄉. 中廟, 仁廟朝, 嘉其恬退, 陞秩召還, 而皆不至. 今上朝命召, 又力辭, 仍上疏論事, 切中時病. 爲人天性孝友, 恬淡寡慾, 居鄉未嘗以私干公, 唯以閑適自娛. 近來能全晚節者, 以賢輔爲稱首.)”.

87) 금서대에 대해서는 이은주,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북

쉽게도 그에게 불자를 하사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이 초상화에서 이현보가 허리에 두르고 있는 금서대를 주목할 수 있다. 금서대는 관복을 입고 허리에 두르는 띠인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으로 실물이 전해지고 있다(도 69).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



도 69. 이현보 금서대, 조선시대, 폭 3.5, 개인소장.
하면 1품의 관리들이 하사받는 특별한 허리띠였다. 따라서 이 허리띠는 이현보가 1품 이상의 관직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⁸⁸⁾ 이 금서대는 이현보가 한양에서 안동으로 귀환할 때 왕이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그에게 이 금서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⁸⁹⁾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신하임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다. 기록에서 찾아 볼 수는 없지만 불자 또한 금서대와 같이 왕에게서 하사 받아 그가 왕에게 있어 특별한 신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추측한다. 당시 왕이 신숙주에게 불자를 하사했다는 기록은 「세조실록(世祖實錄)」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불자는 진영에 자주 등장하며 특히 18세기에 집중되어있다. 불자는 진영을 비롯하여 나한도, 산신도, 조선후기 문인의 초상화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8세기 불자가 나타나는 진영의 현황은 24점으로 이것을 종합하여 특징을 찾아보았다. 그 특징으로는 백불, 용두, 유소 세 가지인데 그 가운데 모든 진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백불이다. 백불에 대해서는 여러 경전과 기록에서 불교에서 흰색이

식』 61, 한국복식학회, 2011, pp. 135-150 참조. 본고에는 금서대가 1품 이상의 관직을 상징한다고 하였지만 이현보의 금서대는 품대의 띠 바탕에 품계를 나타내는 장식판인 띠돈이 18개가 사용되었다. 모든 띠돈에 금테를 둘렀기 때문에 2품용 소금대의 종류로 추측한다.

88) 박은순, 「농암 이현보의 영정과 「영정개모시일기」」, 『미술사학연구』 242·243, 한국미술사학회, 2004, p. 235.

89) 박은순, 앞 글, p. 236.

가지는 상징이나 백불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용두나 유소같은 장식의 경우 자루 길이가 짧은 불자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모두 중간이나 긴 길이의 자루를 가진 불자로 13점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자루가 짧은 불자보다는 자루 길이가 중간이상인 경우에 장식을 추가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진영을 비롯한 나한도와 산신도, 조선시대 문인 이현보의 초상에서도 불자가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자루가 짧은 불자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왜 불자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밝히도록 하겠다.

또한 18세기 불자가 나타나는 진영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1766년의 것과 가장 늦은 1799년의 작품에서 표현한 불자의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18세기 이후 제작된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것으로 보아 불자는 그 상징과 의미가 중요할 뿐 형식이나 양식적인 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IV. 조선 후기 불자의 의미

조선후기 불자는 주로 진영에 등장하며 특히 18세기 진영에 집중되어 있다. 진영 이외에도 나한도와 산신도에서도 나타나며 불교와 관련 없는 조선시대 문인의 초상화에서도 등장한다. 숫자는 적지만 실물 불자 또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남아있고 조선후기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승을 비롯한 나한, 산신, 조선시대의 문인까지 그들은 왜 불자를 쥐고 있으며 그들에게 불자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해 이번 장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불자의 시작은 석굴암의 범천과 제석천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될 때는 이미 불교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범천의 경우는 여러 경전에서 명확하게 불자를 들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범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도리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실 때
신축통으로 세 개의 보배 계단[寶階]을 만들고 가운데
데로 난 일곱 개의 보배 계단 위로 내려오셨다. 범
천왕(梵天王)은 또한 백은으로 된 계단(白銀階)을
만들고 우측에서 흰 불자를 손에 쥐고 모시면서 내
려왔고…90)

『고승법현전(高僧法顯傳)』

…여래께서 선법당에서 일어나 여러 하늘 무리들을
거느리고 가운데 계단을 밟고 내려오실 때 대범왕
은 하얀 불자를 들고 은 계단을 밟고서 오른쪽에서
모셨고…91)

『대당서역기』 第4卷

이와 같이 『고승법현전』과 『대당서역기』는 도리천에서 부처가 내려오는 장면을 이야기 할 때 범천이 오른쪽에서 불자를 들고 있는 모습을 언급했다. 때문에 범천과 제석천이 부처의 옆에서 불자를 들고 있는 경우는 도리천에서 내려오는 부처의 존귀함을 표현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천수관음의 지물로 불자가 등장해 그 의미가 통일기 신라 이후에도 계승된 것을 확인하였다.

불자가 진영에 다수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조선시대에는 고승이 불자를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승에게 불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겠다. 불자는 삼국시대 석굴암에 범천과 제석천, 고려시대에는 천수관음,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진영으로 그려질 만큼 특별한 업적이 있는 승려들이 들고 있지만, 사실 원래 용도는 곤충을 쫓거나 먼지를 터는 등 생활용품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불가에서 번뇌를 쫓는 의미로 불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점차 확대되고 상징화되면서 드디어는 전법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대각국사 의천(1055-1011)이 집필한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각국사문집은 의천계 화엄종 문도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고려 인종 16년(1138)을 전후하여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²⁾ 이 문집에서는 지속적으로 불자를 전법의 증표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천은 화엄강주 정원법사께서 시편을 수교하시고
손 향로와 불자를 하사하시며 법 전하는 증표를
삼으시니 감사하는 즈음에 갑자기 스승님의 편지를
받고 멀리 스님께 이 글을 올린다. …⁹³⁾

90) T2085 51:0858a11, 『高僧法顯傳』, “… 佛從忉利天上來向下。下時化作三道寶階。佛在中道七寶階上行。梵天王亦化作白銀階。在右邊執白拂而侍 …”.

91) T2087 51:0893a21, 『大唐西域記』 第4卷, “中階黃金, 左水精, 右白銀. 如來起善法堂, 從諸天衆, 履中階而下; 大梵王執白拂”.

92) 박용진, 「『大覺國師文集』의 편찬과 그 정치사회적 배경」,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2호, 2007, p. 54.

『대각국사문집』 第17卷

… 현수의 화엄종지의 뜻을 아는 이 드물어서 한번은 깊이 생각하고 한번은 한탄하도다. 몇 해 동안 비로소 새로운 건적을 살펴 본 뒤에야 **법 전하는 향로와 불자**를 누구에게 전할가 알았네.⁹⁴⁾

『대각국사문집』 第 19卷

… 요사이 듣건대 화엄대교(華嚴大敎)를 강설하고 있다 하니 기쁘고 위로되는 소원이 마음속에 모이 었소. 이제 **손 향로와 불자(拂子)** 하나와 깨끗한 수건 안욕(鞍褥) 각 한 벌과 친히 지은 절구(絶句) 한 수를 붙이면서 **이로서 법을 전하는 인연을 짓고자 하오.**⁹⁵⁾

『대각국사외집(大覺國師外集)』 第3卷

위 기록에서는 불자를 손 향로와 함께 전법의 상징물로 표현하고 있다.⁹⁶⁾ 불자가 전법의 상징이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문집이 간행된 1138년 이후인 조선시대에 진영 속 고승이 불자를 들고 있다. 때문에 적어도 선종 이후 불자는 ‘법을 전하는 상징물’ 즉, 설법을 할 때 고승의 상징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을 전한다는 의미는 흔히 불가에서 알려진 의발(衣鉢)을 전수한다는 것과 상통하는 의미이다. 의발을 전수한다는 것은 불자와 같이 전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조선

93) “… 以手爐拂見脫爲傳授之 信感荷之際輒嗣嚴音遙獻几前 …”(李基遠, 『大覺國師文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p. 134.

94) “… 年來始見新篇後 爐拂方知有所歸”(李基遠, 앞 책, 1989, p. 150.

95) “… 近聞講授花嚴大敎. 忻慰之願. 交集于懷合附手爐拂各一柄. 淨巾接褥各一條. 仍親罵絶句一首. 以作傳授之緣.”(李基遠, 앞 책, 1989, p. 191.

96) 손향로에 대해서는 이용진, 「한국의 불교향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참조.

후기에는 관직에 전임자가 후임을 추천하는 것을 ‘사단(詞壇)의 의발을 전해준다.’고 표현한다.⁹⁷⁾ 이 기록은 의발을 전한다는 것이 꼭 법을 전해준다는 의미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점차 여러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불교에서 전법을 상징하는데 일반적으로 의발을 전한다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것은 점차 혼용되어 쓰이기 때문에 불자와 손향로를 전한다는 것이 불교에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한 전법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선종에서는 이것을 차용하여 불자 들고 있는 고승의 모습을 설법 즉, 법을 전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모든 고승진영 주인공이 불자를 들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태조실록(太祖實錄)」에서 그 이유를 상세히 알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지금부터 선종과 교종 중에서 도덕과 재행(才行)이 영수(領袖)가 될 만한 사람을 가려서 서울과 지방의 유명한 사찰(寺刹)을 주관하게 하되, **선(禪)을 맡은 사람에게는 선(禪)을 설명하면서 불자(拂子)를 잡게 하고… 교(敎)를 주관한 사람에게는 경(經)을 강(講)하고 율(律)을 설명하게 하여 그 후진(後進)들로 하여금 선종(禪宗)은 《전등록(傳燈錄)》의 염송(拈頌)을, 교종(敎宗)은 경·율(經律)의 논소(論疏)를 절(節)을 따라 강습시켜, 세월이 오래가면 뛰어난 인물과 덕망이 높은 인물이 어느 절에도 없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⁹⁸⁾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第14卷

97) 『承政院日記』 「英祖」, “국조(國朝) 이래로 대제학을 천망(薦望)하는 규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전임자가 지명하여 천거하는 것을 ‘사단(詞壇)의 의발(衣鉢)을 전해 준다.’라고 이름하였고, 게다가 삼공과 육경이 모여 의논하여 회권(會圈)하였습니다.”, “國朝以來, 最重文衡擬薦之規, 前任之臣指名剡舉, 號爲詞垣傳鉢, 而又集三公六卿而議圈之, 茲誠清官華職之所未有也.”

이 기록은 「태조실록」 가운데 14권 태조 7년 5월 13일 기미 3번째 기사로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에 작성된 것이다. 내용은 서울과 지방에 유명한 사찰을 주관하는 한 사람을 두고 선을 맡은 사람에게 선을 설명하며 불자를 잡게 하라는 홍선사 감주 상충이 왕에게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 기록의 끝에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는 문장으로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각 사찰에 지도자이자 선을 맡은 사람이 불자를 쥐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사찰에 뛰어난 인물과 덕망 높은 인물이 존재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위의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고승이라고 해서 모두 불자를 지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불자를 지물로 삼을 수 있는 고승은 적어도 사찰을 주관하며 선을 담당할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야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선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불자를 들게 함으로서 불자가 선종과 깊은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불자가 선종과 깊은 관계에 있던 것은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에서도 불자를 선종 승려가 설법을 할 때 쥐고 있던 것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이것을 병불(秉拂)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가승기율(摩訶僧祇律)』 제32권에는 불구로서 불자의 수용과 규정이 서술되어 있으며, 『비나야잡사(毘奈耶雜事)』 제6권에는 엄밀한 소재와 제작에 대한 규정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행자에게도 금, 은 등의 보물 자루 이외의 불자에 한해서 소유와 사용이 인정된다. 불교의 유행과 함께 중국에

98)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 第14卷 태조 7년 5월 13일 기미 3번째 기사, “夫豈無徵而欺我哉? 願殿下繼今, 於禪教之中, 擇有道德才行可爲領袖者, 主諸中外名利, 而使宗禪者說禪秉拂 … 主教者講經談律, 令其後進, 禪則《傳燈》拈頌, 教則經律論疏, 追節講習, 積以年月, 宏才碩德, 無寺無之. … 上從之”.

서는 선종에서 특히 유행하였으며, 주지가 설법할 때 위의(威儀)를 바르게 한다는 의미에서 불자를 손에 들었다. 이런 이유로 주지를 대신하여 불자를 손에 들고 설법하는 직업을 병불이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선종에서 많이 이용하지만, 진종(眞宗) 이외의 종파에서도 이용하며, 법회, 관정(灌頂), 장의(葬儀)에서도 도사(導師)가 위의를구(威儀具)로 사용한다.⁹⁹⁾

이처럼 일본의 기록에서는 불자를 불구로서 표현하고 중국 선종에서 유행했다 말한다. 즉, 일본에서도 불자는 선종에서 많이 애용한 지물이지만 이외의 종파에서도 법회, 관정, 장의에서도 의구로 사용했다는 기록이다. 아울러 주지가 설법을 할 때 그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불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주지를 대신하여 불자를 손에 들고 설법하는 직업이 따로 존재했고 이것을 앞서 이야기한 병불이라 부른다. 특히 설법을 할 때 불자를 잡는다는 내용이 「태조실록」의 기록과 중복되어 불자가 선종과 연관되어 있고 설법을 할 때 주로 사용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의 기록과 「태조실록」에서는 선종 고승이 불자를 쥐고 설법을 한다. 또한 불자는 고승이 설법을 할 때 쥐고 있던 것뿐만 아니라 설법의 시작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동문선』 제121권 「비명(碑銘)」에 묘엄존자 탑명(妙嚴尊者塔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가 왕사(王師)의 좌석에 올라 소향(燒香)하고
축복을 마친 뒤에 불자를 일으켜 세워 대중(大衆)
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은 삼세(三世)의 모든

99) 中村元, 久野健, 앞 책, 2003, p. 850.

불설(佛說)이 이르지 못하였으며, 역대(歷代)의 조사(祖師)들이 전도하지 못하였다. 너 대중들이 도리어 알 수 있을까. 만약 심사(心思)와 구설(口舌)로써 계산하고 비교하여 이야기하는 자는 우리 선종(禪宗)에게 무엇이 있겠는가.” ...100)

『동문선』 第121卷 「비명」

사(師) 즉, 묘엄존자는 불자를 일으켜 세워 대중에게 보이며 설법이 시작했음을 알린다. 따라서 불자는 고승이 쥐고 설법을 할 뿐만 아니라 들어 보여줌으로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설법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록으로 추측하건대 불자는 곧 설법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불자가 곧 설법을 의미한다는 것은 불자의 가장 잘 알려진 의미인 마음속의 티끌을 떨쳐내고 번뇌를 털어낸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티끌을 떨쳐내고 번뇌를 털어낸다는 의미는 아쉽게도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경전이나 율서 속에 등장하는 이상(異相)을 주제별로 모아 편찬한 『경률이상(經律異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 부처님께서 차례로 5백 인들을 위하여 법을 말씀하시니,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티끌과 때(塵垢)가 다 사라지고** 법눈(法眼)의 깨끗함을 얻어서 모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원하옵건대 출가하려 하옵니다.” ...101)

『경률이상』 第13卷

100) 『東文選』 第121卷 「碑銘」, “師陞座拈香祝釐已. 豎起拂子示大衆曰. 這箇是三世諸佛說不到. 歷代祖師傳不得底. 大衆還會麼. 若以心思口舌計較說話者. 何有吾宗.”

101) T2121 13:0066c24, 『經律異相』 第13卷, “佛次第爲五百人說法. 卽於座上諸塵垢盡得法眼淨. 皆白佛言. 願欲出家.”

위 기록은 부처의 설법을 듣고 곧 모든 티끌과 때 즉, 번뇌가 다 사라지고 이어 출가를 하는 장면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불자가 곧 설법을 의미한다면 이것을 불자가 번뇌와 마음속의 티끌을 떨쳐내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불자와 주미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며 두 가지 지물이 혼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의미가 두드러지게 혼용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앞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 사찰의 지도자가 불자를 든다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기록이 또 남아있다. 조선후기의 학자 이익이 쓴 책인 『성호사설(星湖僊說)』 12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 둘째는 격조선론(擊朝鮮論)이니 그 대략에,
 … 큰 명나라를 치기 위해 조선에 길을 빌리려 했으나 조선이 듣지 않자, 수길공이 이에 13만 군사를 일으켜 먼저 조선을 토벌하는데, … 감군(監軍) 안국사 혜경(安國寺惠瓊)이 아귀정(餓鬼旌)을 휘날리면서 나가 불자(拂子)를 들고서 지휘하여 격파하였다.…¹⁰²⁾

『성호사설』 第12卷 「인사문(人事門)」
 일본지세변 급 격조선론(日本地勢辨及擊朝鮮論)

위 내용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과의 전쟁인 임진왜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기록에서 일본의 승려이자 승병인 안국사 혜경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깃발로 추정되는

102) 『星湖僊說』 第12卷 「人事門」, “… 其二曰擊朝鮮論槩 … 大明國假道於朝鮮朝鮮不肯焉於是秀吉公起兵十三萬先討朝鮮…監軍安國寺惠瓊楊餓鬼旌而進採拂子指揮奮擊破之隆景望 …”.

아귀정을 휘날리며 불자를 들고 지휘했다 말한다.¹⁰³⁾ 불자를 들고 지휘하였다는 것은 곧 안국사 혜경이 이끄는 군대의 선봉장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자가 우두머리의 상징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도 사용했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도 70. 대암당 대선사 법정 진영, 도 71. 보경당 대선사 복영 진영, 도 72. 영월당 대선사 진영,
조선후기, 109.5x75, 해인사 조선후기, 123.4x87, 해인사 조선후기, 106.2x66.2, 해인사
성보박물관. 성보박물관. 성보박물관

이와 같이 불자는 불가에서 범천과 제석천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하였으며 전법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고 설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군대를 이끄는 승병이 불자를 휘두르는 모습으로 우두머리의 의미 또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장에서 진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지물인 주장자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진영에 나타나는 지물 가운데 불자보다 주장자가 확연하게 많은 숫자를 차지하기 때문에 불자와 주장자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표현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자가 전법의 상징이나 번뇌를 털어내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주장자는 실생활에 더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103) 안국사 혜경은 일본에서 안코쿠지 에케이라 불리는 일본의 승려이자 임진왜란에 참전한 승병이다. 그는 임진왜란에서 진라도로 진입하려 정암진 전투, 웅치 전투를 벌였으나 모두 패하였고 금산성을 탈환하려는 조선군과 금산 전투를 치룬 인물이다.



도 73-1. 선암사 침명당
대화상 한성 진영 주장자
확대.



도 74-1. 선암사 주장자 고리 확대.



도 74. 선암사 주장자, 조선시대, 나무, 전체높이 106.3,
성보박물관.

주장자가 나타나는 조선후기 진영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해인사 정보박물관의 대암당 대선사 범정진영, 보경당 대선사 복영진영, 영월당 대선사진영, 순천 선암사의 침명당 대화상 한성진영이 있다(도70~73). 이들이 손에 쥐고 있는 주장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주장자 상단 부분에 위치한 ‘고리’이다.(도73-1) 이 고리는 현재 순천 선암사에 실물로 남아있는 주장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고리의 용도에 대해서는 다음 경전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도74). 聽比丘某甲畜杖絡囊竟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 승가 대중께
낙낭(絡囊)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비구 아무개에게
낙낭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하도록 허락하는 일을
마칩니다.” …104)

『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
(曇無德部四分律刪補隨機羯磨)』 下卷

7세기 중엽 당나라의 학승 도선이 찬집한 이 경전에서는 주장자를 낙낭을 메는 용도로 표현한다. 낙낭이란 삼으로 만든 주머니로 주로 유행(遊行)승

104) T1808 40:0510c01 『曇無德部四分律刪補隨機羯磨』 下卷 “大德僧聽. … 今從僧乞
畜杖絡囊. … 聽比丘某甲畜杖絡囊竟. …”

려들이 발우나 신발 같은 소지품을 넣는 용도로 사용한다. 따라서 주장자는 유행승려들의 실생활용품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 내용으로 불자와 주장자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불자는 전법과 설법을 담당하는 승려들의 지물이고 주장자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수행하는 승려의 지물인 것이다. 따라서 주장자는 의식용구인 불자에 비해 실용적인 면이 더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자는 불가의 천부신인 범천, 제석천이나 고승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한도와 산신도, 조선시대의 문인인 이현보의 초상에도 등장하고 있다.

나한은 깨달음을 얻은 불교의 성자이다. 그들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의 역할은 앞서 이야기했던 『경률이상』에서 언급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네가 생각하는 바가 너무 지나치게 무겁구나.
부처님의 도는 얻기 어려운 것이니라. 지금 세상에
다행히 부처님께서 계시니, 너는 차라리 아라한을
구하는 것이 낫겠다. **나한이라도 또한 함께 세상을
제도할 수 있고**, 열반에 드는 것도 서로 다름이 없
느니라." ...105)

『경률이상』 第12卷

위 기록에서는 나한을 부처와 함께 세상을 제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고승이 불자를 지물로서 사용하는 것과 나한이 사용하는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추측한다. 나한도 고승과 마찬가지로 전법을 상징하는 의미로 불자를 들거나 법을 전하는 순간에 마음 속 티끌과 번뇌를 쫓아준다는 의미로 불자를 사용한 것이다.

산신도의 경우는 산신신앙 자체가 토속신앙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을 불교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산신이 사찰의 가람이 있는 땅을 지켜주는 수호

105) T2121 53:0062b23, 『經律異相』 第12卷, "... 汝所念大重. 佛道難得. 今世幸有佛. 不如求羅漢. 且俱度世泥洹無異. ..."

신의 의미로 그려졌다. 때문에 고승이나 나한이 불자를 들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산신의 지물로 자주 등장하는 지팡이의 끝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매달린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산신의 권위나 발원자의 소망을 상징하는 물건이다.¹⁰⁶⁾ 그 가운데 하나가 불자이다. 그러나 산신은 설법을 하거나 법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고 신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산신도에 등장하는 불자는 산신의 존귀함과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불자는 불교 관련 존상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앞서 3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조선시대 문인인 이현보의 초상에도 불자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현보는 조선중기의 문인으로 성종을 시작으로 연산군과 중종, 인종, 명종에 이르기까지 네 번의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관직에 머물렀다. 그는 사직을 청하였을 때에도 왕이 그를 만류하여 관직에 남게 할 정도로 총애를 받던 인물이며 지극한 효심을 가졌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그의 초상화에 불자가 등장한다. 이현보의 초상에 불자가 등장한 이유는 「세조실록」의 기록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숙주(申叔舟)가 와서 복명(復命)하니, 화위당(華韞堂)에 나아가서 신숙주와 이조 판서(吏曹判書) 구치관(具致寬)·이조 참판(吏曹參判) 곽연성(郭連城)·도승지(都承旨) 이극감(李克堪) 등을 인견(引見)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신숙주·구치관·이극감 등에게 유지석(油紙席) 각각 1부(部)와 부채(扇子) 각각 10자루, 불자(拂子) 각각 1벌을 내려 주었다.¹⁰⁷⁾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第20卷

106) 장양경, 「19세기 불교 산신도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7, p. 28.

107) 『朝鮮王朝實錄』 「世祖實錄」 第20卷 세조 6년 6월 2일 정미 3번째 기사, “申叔舟來復命. 御華韞堂, 引見叔舟及吏曹判書具致寬, 吏曹參判郭連城, 都承旨李克堪等, 設酌. 賜叔舟, 致寬, 克堪等油紙席各一部, 扇子各十把, 拂子各一事.”

위 기록은 조선전기의 명신으로 알려진 신숙주와 당시 이조판서였던 구치관, 이조참판 곽연성, 도승지 이극감에게 왕이 술자리를 베푸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⁰⁸⁾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왕이 이 네 사람에게 불자를 하사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신숙주는 불자를 하사받기 보름 전에 좌의정 관직을 받았다.¹⁰⁹⁾ 이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불자를 하사 한 것으로 보인다. 왕이 무언가를 하사한다는 것은 관직을 제수(除授)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이거나 또는 왕이 특별히 아끼는 인물이나 공을 세운 인물에게 선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 보아 이현보도 왕에게 불자를 하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현보는 관직에 올라 오랜 시간 지냈고 특히 성주목사로 있던 1524년에는 그의 선정에 감탄한 중종(中宗, 재위 1506-1544)이 그에게 향표리(鄕表裏)를 하사한 기록이 남아있다.¹¹⁰⁾ 그는 이후에도 여러 관직에서 활약하였고 때문에 그의 초상화에 나타나는 금서대 등과 함께 불자를 하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불교 관련 존상 또는 조선시대 문인의 초상화에 나타나는 불자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불자는 손향로와 함께 전범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고 고승들이 설법을 하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한다. 더불어 설법의 시작을 알리며 설법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것과 연관하여 번뇌를 떨쳐낸다는 의미도 해석할 수 있었다. 승병이 주인공인 경우 그가 불자를 휘두르며 지휘하는 모습으로 우두머리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 나한도의 경우 고승과 그 의미를 같이 하는 것으로 추측하며 산신도의 경우 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의 존귀함과 권위를 표현하는데

108) 신숙주에 대해서는 안병희, 「신숙주의 생애와 학문」, 『10월의 문화인물』 10, 국립국어연구원, 2002, pp. 5-25 참조.

109) 『朝鮮王朝實錄』 「世祖實錄」 第20卷 세조 6년 5월 24일 己亥 2번째 기사, “以姜孟卿領議政, 申叔舟左議政 …”.

110) 『朝鮮王朝實錄』 「中宗實錄」 第50卷 중종 19년 1월 21일 丙戌 3번째 기사, “내가 받은 고을은 땅이 크고 인물이 많으므로 백성을 돌보는 직임을 맡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공정하고 청렴하며 근면하고 근신하여 혜택이 백성에게 미친다 하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특별히 향표리(鄕表裏)를 내려 내가 권려(權勵)하는 뜻을 보이니, 너는 내 지극한 마음을 잘 알아서 끝내 변하지 말라.”, “諭星州牧使李賢輔曰: “爾所受邑, 地大物衆, 御煩字牧, 實所難焉. 聞爾公廉勤謹, 惠及於民, 予甚嘉之. 特賜鄕表裏, 以示予勸勵之意, 爾其體予至懷, 終始不渝”.

불자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지어 문인이 불자를 드는 경우도 있어 조선시대에는 왕이 뛰어난 관리에게 불자를 하사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V. 맺음말

인도에서 생활용품으로 시작한 불자는 짐승의 털이나 삼 등을 자루 끝에 맨 모양이다. 이후 불자는 불가에 도입되어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불교 의식용구로 발전한다. 불가에 도입되기 이전 가장 이른 예의 불자는 마우리아 왕조의 약쉬니상이 있다. 약쉬니는 풍요의 신으로 불자를 들어 존엄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고대인도의 불교미술에서는 마투라 박물관 소장 불좌상을 비롯해 몇몇 삼존상의 협시가 불자를 들고 있는 예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불자는 주인공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불자의 가장 이른 예는 석굴암의 범천과 제석천상인데 범천은 경전에서 명확하게 불자를 들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내용은 도리천에서 내려오는 부처의 오른쪽에서 백불을 들고 모시는 장면으로 『고승법현전』과 『대당서역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범천과 제석천은 주로 한 쌍으로 등장하며 부처의 협시 역할을 한다.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도 불자를 사용하여 주인공인 부처의 존귀함을 표현한 것이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천수관음의 지물로 사용한다. 이러한 예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불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나타나는 불자는 주로 진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영은 당대 뛰어난 업적이 있는 고승들의 초상화로 선종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제작을 시작했다. 불자는 특히 18세기 진영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제작연대가 18세기로 밝혀진 진영 가운데 소수의 진영에서 불자가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제작연대가 확실히 밝혀진 24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표 1>에서 언급한 24점의 진영에서 나타나는 불자는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첫째, 진영에 나타나는 불자가 모두 백불이라는 점, 둘째, 자루의 끝에 용두를 표현하였다는 점, 셋째, 불자의 털이 안쪽에 매듭장식인 유소를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확인 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

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첫 번째 특징인 백불은 불자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에서 흰 색은 길상의 색으로 통한다. 『대방광보살장문수사리근본의 계경』에서는 불의 힘으로 재난을 이겨내는 의식을 치를 때 그 불꽃의 색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가운데 흰 색을 길상한 색으로 기록하였다. 백불 또한 불교에서 흰 색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백불이 불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다라니집경』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라니집경』에서는 백불을 공양의 도구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의 야차와 마귀를 물리치는 진언을 송한 후 이들을 피안의 세계로 이끄는 반야바라밀다 법회를 행한다. 이때 사용하는 스물한가지 공양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백불인 것이다. 이 기록을 통해 백불은 공양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백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흰 털은 흰 말이나 흰 소와 같이 흰 동물의 털을 사용했는데, 물론 이들이 흔하지 않은 귀한 동물이었던 점도 백불을 귀하게 여긴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인 용두는 불자의 털이가 자루와 연결되는 부분에 나타난다. 용두를 표현한 불자는 본고에서 다룬 24점 가운데 6점으로 용두는 특히 자루가 긴 불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털이를 용이 물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용은 상상의 동물로 많은 상징성을 지니는데 그 가운데 불자의 용두는 호법과 불자를 쥐고 있는 주인공의 권위를 상징한다. 특히 불자는 선종에서 전법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어 불자에 담긴 법을 지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설법을 하는 진영 속 주인공인 고승의 권위를 상징함으로서 그들이 특별한 업적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유소는 한국 전통의 매듭장식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말기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사라졌다. 유소는 주로 악기나, 번, 국새를 비롯한 의장물에 사용하였고 각종 복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불화나 불번 등에 표현하고 있

어 하나의 중요한 장식 또는 장엄요소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유소는 공신초상화나 어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장식과 더불어 주인공의 신분과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모든 진영의 불자에서 유소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용두처럼 주로 자루가 긴 불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신초상화나 어진과 같은 맥락으로 권위를 상징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른다. 진영 속 고승들이 모두 뛰어난 업적을 가진데 반해 유소가 모든 고승들의 불자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그들의 권위를 상징한다는 것 보다는 불자에 장엄요소로 유소를 추가했을 것이다.

한편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특징 이외에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불자의 자루이다. 흥미롭게도 진영에 나타나는 불자의 자루는 길이가 모두 다르다. 자루가 짧고 긴 것에 따라 장식과 털이의 길이가 달라지는 차이를 보인다. 즉 자루가 긴 불자가 짧은 불자보다 털이가 더 길고 장식 또한 추가되어 짧은 불자에 비해 화려한 편이다. 따라서 필자는 자루가 긴 불자를 들고 있는 고승과 짧은 불자를 들고 있는 고승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때 기준은 송광사의 십육국사 진영으로 삼았다. 송광사 십육국사 진영은 불자가 나타나는 24점의 18세기 진영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자루의 길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불자가 나타나는 진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송광사의 십육국사 진영을 기준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송광사 십육국사 진영 가운데 불자가 나타나는 진영은 10점으로 자루의 길이가 긴 것을 들고 있는 것은 제2세 진각국사와 제5세 자진국사 진영이 있다. 다른 8점의 진영은 자루가 짧은 불자를 들고 있어 이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제2세 진각국사는 『선문염송』을 비롯한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1권, 『금강경찬(金剛經贊)』 1권 등의 다양한 저서를 남겼으며, 제5세 자진국사의 경우 불대사를 창건하는 업적을 세운 것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8명의 국사 또한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긴 것이 사실이지만 진각국사만큼 많은 저서를 남긴 인물이 없

고 자진국사처럼 사찰을 창건한 인물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때문에 불자의 자루가 길고 장식을 추가적으로 표현한 불자를 들고 있는 제2세 진각국사와 제5세 자진국사의 위계가 짧은 불자를 들고 있는 8명의 국사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은 아닌지 추정해보았다. 그러나 김룡사 청허하 제철세 설화당 지침 진영과 백련당 대선사 상림진영, 대승사 묘적함 보각등계 동봉 대화상 진영 등에서 자루가 긴 불자를 들고 있음에도 자세한 업적이 전해지지 않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또 해인사 개산조사 순응대덕 진영은 순응이 해인사를 창건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루가 짧은 불자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자루 길이와 고승의 위계 차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단언하기는 어려움이 따랐다.

불자의 자루는 길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영에 나타나는 불자처럼 나무를 사용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불자로 사치스러움을 나타낼 때 옥과 같은 보석으로 자루를 제작한 기록도 남아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존하는 자루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나전 국화넝쿨무늬 불자 1점이 전해진다. 이것은 완형이 아닌 자루만 남아있는 불자인데 나전으로 화려하게 국화와 넝쿨무늬를 표현하였고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불자를 제작함에 있어 당대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였고 화려한 장식을 가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이다.

현재 남아 있는 실물 불자는 표충사 소장 불자 3점이다. 이것은 사명대사의 유품으로 전해지며 자루는 잃어버리고 털이만 남아있다. 표충사 실물불자는 모두 털이가 긴 백불이고 그 안에 유소가 장식되어있다. 앞서 이야기한 특징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면 3점 모두 털이가 길고 유소가 장식되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긴 자루를 가진 불자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실물로 남아있는 불자가 모두 백불이라는 점과 유소가 장식되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진영 속에 나타나는 불자들이 실제 고승이 사용했던 것을 토대로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자는 꼭 고승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조선후기 작품 가운데

나한도와 산신도에서도 불자가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18세기 진영을 중심으로 불자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나한도와 산신도 역시 18세기 작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나한도의 경우 송광사 16나한도, 선암사 33조사도, 상주 남장사 나한도에서 불자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한도에서 나타나는 불자는 자루가 모두 짧고 장식이 없는 불자로 십육나한도와 33조사도 등 다수의 나한이 출현하는 작품에서 일부의 인물들이 불자를 쥐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불자는 모두 불교 관련 존상으로 고승진영과 나한도, 산신도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조선시대 문인인 이현보의 초상화에서도 불자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이유로 불자를 들고 있는 것인지 또 그들이 들고 있는 불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보았다.

불자는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진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고승이 손에 불자를 쥐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고승이 설법할 때 불자를 쥐었던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의천의 『대각국사문집』에는 불자를 손향로와 함께 전법의 증표라고 말한다. 불자가 정확히 언제부터 전법의 상징물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영에서 나타나는 불자는 법을 전하는 즉, 고승이 설법을 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을 뒷받침 해주는 자료는 「태조실록」으로 홍선사 감주 상충이 왕에게 건의했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왕에게 ‘각 사찰에 사찰을 주관하는 한사람 두되 선을 맡은 사람에게는 선을 설명하면서 불자를 잡게 하라’고 이야기한다. 이 기록에 끝에 ‘왕이 그대로 따랐다’고 적혀있어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었음을 말해준다. 선을 설명한다는 것은 곧 설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이라는 것은 선종을 의미하여 선종의 고승이 설법을 할 때 불자를 쥐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불자는 설법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법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였다. 『동문선』의 묘엄존자 탑명에는 묘엄존자가 ‘불자를 일으켜 세워 대중에게 보이며 설법을 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기록을

통해 불자를 들어 보임으로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설법의 시작을 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불자는 곧 설법을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불자가 설법을 상징한다는 것은 곧 불자의 가장 잘 알려진 의미인 마음속의 티끌과 번뇌를 털어낸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경률이상』에서는 ‘부처의 설법을 듣고 마음속의 모든 티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찾아 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불자가 곧 설법을 상징한다면 이것을 불자가 마음속의 티끌과 번뇌를 떨쳐내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선종승려이면서도 승병이 불자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명대사이다. 그는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큰 공을 세운 인물로 많은 진영을 제작하였고 진영에서 불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사명대사에 관한 기록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성호사설』의 임진왜란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의 승병 중 하나인 ‘안국사 혜경이 불자를 들고 군대를 지휘하였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불자가 우두머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한도에 등장하는 불자는 설법을 의미하는 고승의 불자와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한 역시 깨달음을 얻은 존재로서 부처와 함께 세상을 제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승과 마찬가지로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기 위해 설법을 하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 불자를 사용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문인 이현보 초상에 나타나는 불자는 그가 왕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임을 나타낸다. 「세조실록」에 이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세조가 신숙주를 비롯한 몇몇의 관리들을 불러 술자리를 베푸는데 이때 그들에게 불자를 1사씩 하사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다. 신숙주는 세조의 정권교체 당시 가까운 곳에서 세조를 도왔던 인물로 세조의 극진한 총애를 받았다. 또 불자를 하사받기 보름 전 좌의정 관직에 올라 이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술자리를 베풀고 불자를 비롯한 선물들을 하사한 것으로 짐작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현보 또한 다양한

관직에서 활동하였고 3대의 조정이 바뀌는 동안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불자를 하사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따르면 불자는 인도에서 생활용품으로 시작하였지만 불가에 도입된 이후 선종에서 ‘전법을 상징’하기도 하고 ‘설법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 주인공의 존귀함과 존엄함을 표현하기도 하며 승병이 군대를 지휘할 때 사용하여 우두머리를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왕이 특별히 아끼는 관리들에게 선물로 불자를 하사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때문에 불자는 선종 고승이 가장 애용했던 지물임과 동시에 다양한 존재들이 사용함으로서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한 상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 범구인 불자는 실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그간 연구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필자는 진영이나 나한도, 산신도와 같은 불화를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불자의 개념과 시작을 알 수 있었고 18세기 작품에 나타나는 불자의 현황과 특징, 아울러 그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남아있는 실물 불자의 수가 적어 다양한 관점에서 불자를 비교, 연구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지만 불자는 통일기 신라를 시작으로 현대에도 애용하는 불가의 가장 보편적인 지물 가운데 하나이다.

참 고 문 헌

기초자료

- 『三國遺事』
- 『東文選』
- 『朝鮮王朝實錄』
- 『東國李相國集』
- 『承政院日記』
- 『星湖僊說』
- 『大方廣菩薩藏文殊師利根本儀軌經』
- 『大乘百福相經』
- 『陀羅尼集經』
- 『宣和奉使高麗圖經』
- 『影幀摸寫都監儀軌』
- 『御眞移摸都監儀軌』
- 『新增東國輿地勝覽』
- 『樂全堂集』
- 『大唐西域記』
- 『度世品經』
- 『高僧法顯傳』
- 『經律異相』
- 『曇無德部四分律刪補隨機羯磨』
- 「斷俗寺神行禪師碑文」

도록·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프랑스국립기메동양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1999.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전통 매듭』, 2004.

송광사·순천시, 『보물 제 1043호 순천 송광사 십육조사진영 보존처리 및 모사제작 보고서』, 2014.

직지사정보박물관, 『직지사정보박물관의 유물』, 2003.

단행본

양현지, 서윤희, 『洛陽伽藍記』, 놀와, 2001.

中村元, 久野健, 『佛教美術事典』, 東京: 東京書籍, 2003.

李基遠, 『大覺國師文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학술지

곽승훈, 「신라시대 지리산권의 불사활동과 신행선사비의 건립: 중대 말 하대 초의 정치변동과 관련하여」, 『신라문화』 3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pp. 193-218.

김정희, 「진영(眞影)특집: 조선후기 화승(畫僧의) 진영상(眞影像)」, 『강좌미술사』 35,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0, pp. 69-113.

_____, 「한국의 천수관음 신앙과 천수관음도」, 『정토학연구』 17, 한국정토학회, 2012, pp. 149-196.

문명대, 「해인사 목조 회랑조사 진영상의 고찰」, 『미술사학연구』 138·139, 한국미술사학회, 1978, pp. 20-27.

박연곤·이재인·최효식, 「한국 불교사원의 계단과 계단도경의 비교 연구」, 『건축역사연구』 16, 2007, pp. 99-118.

박용진, 「『大覺國師文集』의 편찬과 그 정치사회적 배경」,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2호, 2007.

박진영, 「조선시대 공신화상 유소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 박은순, 「농암 이현보의 영정과 「영정개모시일기」」, 『미술사학연구』 242·243, 한국미술사학회, 2004.
- 신광희, 「상주 남장사의 위상과 나한도」, 『문학/사학/철학』 47, 한국불교사연구소, 2016.
- 안경식, 「신라 하대 불교지성, 진감 선사의 삶의 교육학적 의미」, 『宗教教育學研究』 54, 한국종교교육학회, 2017, pp. 175-197.
- 엄기표, 「高麗時代 幢竿과 幢竿支柱」, 『文化史學』 11·12·13, 한국문화사학회, 1999.
- _____, 「고려 후기 송광사 출신 16국사의 석조부도 연구」, 『문화사학』 29, 한국문화사학회, 2008.
- _____, 「高麗-朝鮮時代 分舍利 浮屠의 建立 記錄과 樣相 그리고 造成 背景」, 『불교미술사학』 20, 불교미술사학회, 2015.
- 안병희, 「신숙주의 생애와 학문」, 『10월의 문화인물』 10, 국립국어연구원, 2002, pp. 5-25.
- 이경복, 「원진국사 승형의 활동과 최충헌」, 『역사와 담론』 36, 호서사학회, 2003, pp. 73-93.
- 이주형, 「인도 초기 불상의 형상과 그 의미 시고」, 『미술사와 시각문화』 12,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3, pp. 192-227.
- 이영숙, 「선암사 33조사탱화」, 『불교문화연구』 4, 남도불교문화연구회, 1994, pp. 91-103.
- 이은주, 「조선시대 품대의 구조와 세부 명칭에 관한 연구」, 『복식』 61, 한국복식학회, 2011.
- 이지관,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신라편』, 1993, pp. 54-59.
- 임영애, 「고대 불교조각의 생령과, 형상과 그 의미」, 『중앙아시아연구』 19, 중앙아시아학회, 2014, pp. 35-59.
- _____, 『유마경』의 유마거사상과 문수보살상』, 『미술사학연구』 286, 2015.
- 정명호, 「佛敎工藝: 拂子를 중심으로」, 『불교미술』 13, 1996.

- 정우택, 「조선시대 후기 진영고」, 『깨달음의 길을 간 얼굴들-한국 고승 진영전』, 직지정보박물관, 2000.
- _____, 「조선왕조시대 후기 불교진영」, 『다시보는 우리 초상의 세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 주호찬, 「벽송 지엄의 「벽송당야로송」」, 『한국선학』 14, 한국선학회, 2006, pp. 161-203.
- 최은희, 「교육의 관점에서 본 진각국사 혜심의 일생」, 『동아시아불교문화』 17,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4.
- 한기문, 「신라 하대 흥륜사와 금당 십성의 성격」, 『신라문화』 2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2, pp. 171-195.
- 황인규, 「목우자 지눌의 선풍과 고려후기 조선 초 불교계의 고승 등 - 수선사계 고승들의 사법관계와 그 선풍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19, 보조사상연구원, 2003.
- 허형욱, 『석굴암 梵天·帝釋天像 도상의 기원과 성립』, 미술사학연구, 2005.
- 王勇, 「塵尾雜考」, 『佛教藝術』 175, 1987, pp. 73-89.

학위논문

- 김미정, 「한국 금강저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8.
- 김준오, 「인도 초기 Stupa 형식 연구 - Relief stupa 분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2.
- 손진, 「한국불화의 산신신앙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8.
- 신광희, 「한국의 나한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0.
- 양지은, 「려말선초 다면다비 보살 도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9.
- 오준호, 「사명유정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 이승주, 「송광사 응진당 십육나한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문, 2007.

이용진, 「한국의 불교향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이장혁, 「불교경전에 나타난 용의 상징성 연구」, 위덕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

장양경, 「19세기 불교 산신도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7.

조수정, 「선종화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십우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

도판 목록

- 도 1. 불자의 부분별 명칭, ©이슬기.
- 도 2. 약취니상, 디다르간지 출토, 높이 162cm, 1세기 초, 파르나박물관, ©임영애.
- 도 3. 불좌상(佛坐像), 기원후 2세기 초, 적색 사암, 높이 69cm, 인도카트라 출토, 마투라 박물관, ©임영애.
- 도 4. 바르후트 스투파, 기원전 2세기, 캘카타박물관, 『한국 불교 조각의 흐름』.
- 도 5. 범천(원)과 제석천상(오), 8세기 중반 추정, 석굴암.
- 도 6. 도리사세존사리탑금동육각사리함, 고려시대, 직지사성보박물관, ©문화재청.
- 도 7. 철조천수관음상, 고려시대 말, 프랑스국립기메동양박물관, ©『L'Are coréen au musée Guimet』, p. 57, 도 14.
- 도 8. 주미, 통일기 신라, 총길이 61.0cm, 자루길이 22.0cm, 정창원, ©奈良국립박물관, 정창원전 54, 2002, 도 62.
- 도 9. 안악 3호분 묘주 초상, 4세기, 안악 3호분, ©동북아문화재단.
- 도 10. 덕흥리 고분 묘주도, 408년, 덕흥리고분, ©동북아문화재단.
- 도 11. 도교조상비, 西魏 554년, 높이 70.6cm, ©오사카시립미술관.
- 도 12. 석굴암 유마거사상, 8세기, 석굴암, ©임영애.
- 도 13. ‘범천’ 명문을 지닌 범천상, 榆林 제16굴, 中國敦煌壁畫全集編輯委員會, ©『中國敦煌壁畫全集』 9, 天津: 天津人民美術出版社, 2006, p.112.
- 도 14. 동대사 계단원 주자 비회 범천(원)과 제석천(오), 8세기(1148년 복원), 국립나라박물관, ©국립나라박물관 홈페이지.
- 도 15. 포월당대선사초민진영, 1766년, 122.5X78.7,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328호, 안동 봉정사,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 II』 2, 2008, p. 54, 도 164.

- 도 16. 의상대사진영, 1767년, 부산 범어사, © 『한국의 사찰문화재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I』, 2010, p. 70, 도 282.
- 도 17. 송운당대선사진영, 1768년, 120.4X79,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328호, 안동 봉정사, ©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 II』 2, 2008, p. 53, 도 161.
- 도 18. 송광사 국사전 진각국사진영(제2세), 1780년, 보물 1043호, © 『한국의 불화』 7 송광사 본말사 편(하), 1998, p. 12, 도 2.
- 도 19. 송광사 국사전 청진국사진영(제3세), 1780년, 견본채색, 135×77.5cm, 보물 1043호, © 『한국의 불화』 7 송광사 본말사 편(하), 1998, p. 13, 도 3.
- 도 20. 송광사 국사전 자진국사진영(제5세), 1780년, 견본채색, 135×77.5cm, 보물 1043호, © 『한국의 불화』 7 송광사 본말사 편(하), 1998, p. 15, 도 5.
- 도 21. 송광사 국사전 자정국사진영(제7세), 1780년, 견본채색, 135×77.5cm, 보물 1043호, © 『한국의 불화』 7 송광사 본말사 편(하), 1998, p. 17, 도 7.
- 도 22. 송광사 국사전 자각국사진영(제8세), 1780년, 견본채색, 135×77.5cm, 보물 1043호, © 『한국의 불화』 7 송광사 본말사 편(하), 1998, p. 18, 도 8.
- 도 23. 송광사 국사전 담당국사진영(제9세), 1780년, 견본채색, 135×77.5cm, 보물 1043호, © 『한국의 불화』 7 송광사 본말사 편(하), 1998, p. 19, 도 9.
- 도 24. 송광사 국사전 혜감국사진영(제10세), 1780년, 견본채색, 135×77.5cm, 보물 1043호, © 『한국의 불화』 7 송광사 본말사 편(하), 1998, p. 20, 도 10.
- 도 25. 송광사 국사전 각엄국사진영(제13세), 1780년, 견본채색, 135×77.5cm, 보물 1043호, © 『한국의 불화』 7 송광사 본말사 편(하), 1998, p. 23, 도 13.

- 도 26. 송광사 국사전 정혜국사진영(제14세), 1780년, 견본채색, 135×77.5cm, 보물 1043호, ©『한국의 불화』 7 송광사 본말사편(하), 1998, p. 24, 도 14.
- 도 27. 송광사 국사전 홍진국사진영(제15세), 1780년, 견본채색, 135×77.5cm, 보물 1043호, ©『한국의 불화』 7 송광사 본말사편(하), 1998, p. 25, 도 15.
- 도 28. 사국일도대전사벽암존자진영, 1780년, 122.5X83, 해인사 벽암당,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남도 I』 2, 2009, p. 392, 도 704..
- 도 29. 함양용추사무학대사영정, 1781년, 삼배, 101X80.5, 수장고,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26호,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남도 I』 2, 2009, p. 231, 도 257.
- 도 30. 함양용추사송운대사영정, 1781년, 삼배, 101.8X81.8, 수장고,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26-3호,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남도 I』 2, 2009, p. 231, 도 259.
- 도 31. 함양용추사각연대사영정, 1781년, 102.7X81.5, 수장고,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26-4호,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남도 I』 2, 2009, p. 231, 도 260.
- 도 32. 대덕안국청허당대전사진영, 1782년, 130X95.3, 의성 대곡사,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 II』 2, 2008, p. 365, 도 276.
- 도 33. 서천국조사지공·공민왕사나옹·태조왕사무학대화상진영, 1782년, 125X242.5, 의성 대곡사,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 II』 2, 2008, p. 365, 도 278.
- 도 34. 유명조선국대광보국승대장사명당진영, 1782년, 130X93.7, 의성 대곡사,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 II』 2, 2008, p. 365, 도 279.
- 도 35. 범일국사진영, 1788년, 비단채색, 94.5X63, 월정사박물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140호, ©『한국의 사찰문화재 - 강원도』,

2002, p. 58, 도 117.

- 도 36. 청허당집, 1794, 동국대학교 박물관.
- 도 37. 사명당대장진영, 1796년, 107X70, 보물 제 1505호, ©『한국의 사찰문화재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1, 2007, p. 46, 도 109.
- 도 38. 통도사 환성당 대화상 진영, 1799, 81.7X122, 통도사 성보박물관, ©『깨달음의 길을 간 얼굴들-한국 고승 진영전』, 직지성보박물관, 2000, p. 117, 도 52.
- 도 39. 금동 당간 용두, 통일기 신라, 보물 제1410호, 국립대구박물관, ©문화재청.
- 도 40. 금동 용두보당, 고려시대, 국보 제136호, 삼성리움미술관, ©문화재청.
- 도 41. 『영정모사도감의궤』에 실린 유소,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전통 매듭』, 2004, p.56.
- 도 42. 조선태조어진, 조선시대, 국보 제317호, 어진박물관, ©문화재청.
- 도 43. 공신화상과 어진에 장식된 유소 비교, ©이슬기.
- 도 44. 나전 국화 넝쿨무늬 불자, 12세기, 42.7,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 도 45. 『선문염송』, 삼국시대, 성현사, ©문화재청.
- 도 46. 청허하제칠세설허당지침진영, 조선후기, 138×96, 직지성보박물관, 문경 김룡사,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 II』 1, 2008, p. 331, 도 100.
- 도 47. 백련당대선사상림진영, 조선후기, 비단, 110.4×79, 1폭, 직지성보박물관, 문경 김룡사 화장암,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 II』 1, 2008, p. 367, 도 310.
- 도 48. 보각등계동봉대화상진영, 조선후기, 115×76.5, 인법당, 문경 대승사 묘적암,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 II』 1, 2008, p. 404, 도 496.

- 도 49. 개산조사순응대덕진영, 조선후기, 105.5×80.9, 해인사정보박물관, 합천 해인사, ©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남도 II』, 2008, p. 304, 도 199.
- 도 50. 불자(拂子), 길이 81cm, 86cm, 54cm, 표충사, © 『깨달음의 길을 간 얼굴들-한국 고승 진영전』, 직지정보박물관, 2000, p. 37.
- 도 51. 일명진영, 1766년 추정, 121×75.7, 경상북도 유형문유형문화재 제328호, 안동 봉정사, ©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 II』, 2008, p. 54, 도 167.
- 도 52. 응진당 십육나한도(1, 3, 5존자), 1725년, 123X183, 보물 제1367호, 송광사 정보박물관, © 『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 2006, p. 370, 도 927.
- 도 53. 응진당 십육나한도(2, 4, 6존자), 1725년, 122X187, 보물 제1367호, 송광사 정보박물관, © 『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 2006, p. 370, 도 928.
- 도 54. 응진당 십육나한도(7, 9존자), 1725년, 120X97.5, 보물 제1367호, 송광사 정보박물관, © 『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 2006, p. 370, 도 929.
- 도 55. 응진당 십육나한도(8, 10존자), 1725년, 123X102, 보물 제1367호, 송광사 정보박물관, © 『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 2006, p. 371, 도 930.
- 도 56. 응진당 십육나한도(11, 13, 15존자), 1725년, 120.5X151.5, 보물 제1367호, 송광사 정보박물관, © 『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 2006, p. 371, 도 931.
- 도 57. 응진당 십육나한도(12, 14, 16존자), 1725년, 123X152.5, 보물 제1367호, 송광사 정보박물관, © 『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 p. 371, 도 932.
- 도 58. 팔상전 삼십삼조사도(석사모니, 1, 2조사), 1753년, 139X191.5, 선암사 정보박물관, © 『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광역시·전

- 라남도 I』, 2006, p. 209, 도 203.
- 도 59. 팔상전 삼십삼조사도(17, 19, 21조사), 1753년, 136.5X190.5, 선암사 정보박물관, ©『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 2006, p. 209, 도 204.
- 도 60. 팔상전 삼십삼조사도(23, 25조사), 1753년, 136X142.5, 선암사 정보박물관, ©『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 2006, p. 209, 도 205.
- 도 61. 팔상전 삼십삼조사도(27, 28, 29, 30조사), 1753년, 136X235.5, 선암사 정보박물관, ©『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 2006, p. 209, 도 206.
- 도 62. 팔상전 삼십삼조사도(31, 32, 33조사), 1753년, 135.7X222.5, 선암사 정보박물관, ©『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 2006, p. 210, 도 207.
- 도 63. 팔상전 삼십삼조사도(16, 18, 20조사), 1753년, 139X221, 선암사 정보박물관, ©『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 2006, p. 210, 도 208.
- 도 64. 팔상전 삼십삼조사도(22, 24, 26조사), 1753년, 134.5X220, 선암사 정보박물관, ©『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 2006, p. 210, 도 209.
- 도 65. 나한도(7, 9, 11, 13, 15존자), 1790년, 112X219, 직지정보박물관,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 II』 1, 2008, p. 457, 도 55.
- 도 66. 나한도(8, 10, 12, 14, 16존자), 1790년, 112X219, 직지정보박물관,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북도 II』 1, 2008, p. 457, 도 56.
- 도 67. 산신도, 1788년, 91.5X59.8, 함양 용추사,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남도 I』 2, 2009, p. 230, 도 256.
- 도 68. 이현보초상, 16세기, 126X105, 보물 제872호, 개인소장, ©문화재청.

- 도 69. 이현보 금서대, 조선시대, 폭 3.5, 개인소장, ©문화재청.
- 도 70. 대암당대선사법정진영, 조선후기, 109.5x75, 해인사정보박물관, 합천 해인사,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남도 I-2』 1, 2009, p. 301, 도 181.
- 도 71. 보경당대선사복영진영, 조선후기, 삼베, 123.4X87, 해인사정보박물관, 합천 해인사,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남도 I』 2, 2009, p. 303, 도 190.
- 도 72. 영월당대선사진영, 조선후기, 삼베, 106.2X66.2, 해인사정보박물관, 합천 해인사, ©『한국의 사찰문화재 - 경상남도 I』 2, 2009, p. 305, 도 203.
- 도 73. 주장자, 조선시대, 나무, 전체높이 106.3, 정보박물관, 순천 선암사, ©『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 1, 2006, p. 245, 도 351.

조선후기 拂子 연구

이 슬 기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지도교수 임 영 애

(국문초록)

조선후기 진영의 고승은 다양한 지물을 들고 있다. 예컨대 불자(拂子), 지팡이[拄杖子], 염주(念珠)가 대표적인데, 그 가운데 불자가 본 연구에 대상이다. 이 글은 조선후기 진영에 나타나는 불자의 특징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였다. 의문을 밝히기에 앞서 불자의 시작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18세기 진영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진영에 나타나는 불자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불자는 인도에서 곤충을 쫓는 용도로 시작하여 불가에 유입되면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추측한다. 우리나라의 가장 이른 시기 불자는 통일기 신라 석굴암의 범천과 제석천의 지물로 등장한다. 고려시대에는 천수관음의 지물로 나타나며 조선시대에는 진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자를 지물로 한 조선시대 진영 가운데 가장 많은 자료가 남아있는 시기는 18세기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총 24점의 진영에서 불자를 찾아 볼 수 있는데 봉정사, 범어사, 송광사, 해인사, 용추사, 대곡사, 월정사, 동화사, 통도사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표충사에는 사명대사 유품으로 전해지는 실물불자가 3점 남아있다.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여 찾아볼 수 있는 조선후기 불자의 특징은 총 세 가지이다. 첫째, 백불, 둘째, 용두, 셋째, 유소이다. 18세기 진영에 나타나는 불자는 모두 백불이며 실물불자 또한 백불이다. 그 가운데 ‘자루가 긴 불자’에서 주로 장식적인 요소인 용두와 유소가 나타난다.

불자는 진영뿐만 아니라 나한도와 조선시대 문인의 초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장식이 없는 ‘짧은 자루의 불자’가 나타난다.

진영에 불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선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에서는 불자를 법을 전하는 증표로 언급하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선을 설명하는 고승에게 불자를 쥐게 하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선종에서 불자는 전법의 증표임을 알 수 있다. 나한도에 불자가 나타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선시대 문인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조선중기의 문인인 이현보의 초상화에서 주인공이 오른손에 불자를 쥐고 있다. 이것과 관련한 내용은 『세조실록(世祖實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의미로 불자를 하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자는 통일기 신라를 시작으로 현대까지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물이다. 불자는 누구나 들 수 있는 지물이 아닌 법을 전하는 고승이나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조선후기, 불자, 18세기, 진영, 백불

A study on a fly-whisk of the late Joseon Dynasty

Lee Seul Ki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im, Young Ae)

(Abstract)

In portraits of Buddhist monks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he monk is holding attributes such as a fly-whisk, staff and Buddhist rosary. Among these typical attributes, the fly-whisk is the subject of the stud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ultural meaning of the fly-whisk as well as its specific feature from the 18th century to the late Joseon Dynasty.

The fly-whisk was originally a symbol from the Hindu religion that Buddhist later incorporated. It has cross-cultural features and various meanings. For instance, it was not only used as a tool to sweep the insects but also represented as a symbol of sweeping away ignorance and other delusive thoughts. The earliest fly-whisk found in Korea was shown as an attribute in Seokguram Grotto's Brahma and Indra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the fly-whisk can be found in Chunsoogwaneum from the Goryeo Dynasty and the portraits of Buddhist monks from the Joseon Dynasty.

Much of the portraits in which the fly-whisk was held by a monk are

remained in the 18th century. From the best of my research, I discovered that a number of fly-whisks in twenty-four portraits of Buddhist monks were found in the temple of Pongjŏng-sa, Pŏmŏ-sa, Songgwang-sa, Haein-sa Yongch'u-sa, Taeguk-sa, Wŏlchŏng-sa, Tonghwa-sa and T'ongdo-sa. Also, three of actual fly-whisks held by Saint Sa-myung have been preserved in P'yoch'ung-sa temple.

In addition, there are three key features of the fly-whisk that can be found in the late Joseon period. First, white colored fly-whisk. Second, dragon's head. Third, Yuso. Any fly-whisk described in the portraits of Buddhist monks from the 18th century is all white colored and so is the actual fly-whisk. Specifically, the one with a long handle has decorative features, dragon's head and Yuso.

The fly-whisk can also be seen from both of the Arhat Paintings and the portraits of the literary men of Joseon period. Only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and the portraits of Buddhist monks is that the fly-whisk is described as relatively short in length with no decorations.

It seemed that the appearance of the fly-whisk in the portraits of Buddhist monks had much to do with Zen Buddhism. According to the Taegak Kuksa-Munjip and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the fly-whisk was symbolized as a mark of the propagation of Buddhism and only given to those who spread the message of Buddhism. The appearance of the fly whisk in the Arhat Paintings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one appeared in the portraits of Buddhist monks. However, the literary men from the Joseon Dynasty is a different case. In the portrait of the literary official, Lee Hyeon-bo from the mid-Joseon period, he is holding a fly-whisk in his right hand. According to the Annals of King Sejo, the King granted a fly-whisk to those whom he favored.

The fly-whisk has been carried on from the period of Unified Silla to modern times. It was not just any other tool that was given to a number of people; it was a privilege only given to those who were favored by the King.